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
김경옥(하니), 김경태(둘리엄마), 김기나(진달래), 김미애(스콜라)
송경선(달님), 신현주(콩쥐), 윤일순(개구리), 이말순(코뿔소)
정영화(마법사), 장혜경(무지개꽃), 최윤희(파랑새), 호정애(호랑이)

2010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개정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
김미애(스콜라), 김우(느리), 김성희(기린), 나은미(아자작),
이현숙(거인), 함선영(두부), 호정애(호랑이)

2013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인증지침서 개정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
김경순(누룽지), 김경태(둘리엄마), 김기나(진달래), 김미애(스콜라), 김성희(기린),
김수정(밍몽), 나은미(아자작), 이말순(코뿔소), 이현숙(거인), 장혜경(무지개꽃),
정영화(마법사), 조현제(아라치), 함선영(두부)

2015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인증지침서 개정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
김경태(둘리엄마), 김경순(누룽지), 김미애(스콜라), 김성희(기린), 김수정(밍몽),
나은미(아자작), 백승미(미리내), 박영혜(모자), 이현숙(거인), 장혜경(무지개꽃),
조윤지(아침)

차 례

Ⅰ. 총론 ····· 5
1.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의 필요성 ····· 7
2.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9
3. 인증지침서의 구성 ····· 10
4.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의 개정 배경 ····· 10
5.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 ····· 12
6.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과정 ····· 13
1) 초기인증 ····· 13
2) 재인증 ····· 20
3) 사후관리 ····· 26

Ⅱ.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 29
1. 운영부문 ····· 31
2. 교육부문 ····· 33

Ⅲ.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해설 ····· 37
1. 운영부문 ····· 39
[영역 1] 정관 및 제반 규정 ····· 39
가. 정관 ····· 39
나. 운영규정 ····· 40
다. 인사 및 급여 규정 ····· 40
[영역 2] 운영기구 ····· 40
가. 총회 ····· 41
나. 이사회 ····· 42
다. 교사회 ····· 45
[영역 3] 조합원 ····· 48
가. 조합원 현황과 모집 ····· 48
나. 조합원교육 및 활동 ····· 50

[영역 4] 보육교직원 ····· 53
가. 채용 ····· 53
나. 복지 ····· 55
다. 교육 ····· 56
[영역 5] 재정 관리 ····· 59
가. 어린이집 신고 및 보험 가입 ····· 59
나. 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61
다. 협동조합 재정 관리 ····· 63
라. 어린이집 재정 관리 ····· 65
마. 재정문서 관리 ····· 65
[영역 6] 회원활동과 연대활동 ····· 66
가. 회원활동 ····· 67
나. 연대활동 ····· 67
2. 교육부문 ····· 70
[영역 1] 터전 환경 ····· 70
가. 바깥 환경 ····· 71
나. 실내 환경 ····· 73
나. 보·교육활동 자료 ····· 77
[영역 2] 어린이집 운영 ····· 82
[영역 3] 보·교육 과정 ····· 84
가. 보·교육의 계획 및 평가 ····· 84
나. 보·교육내용의 구성 ····· 90
다. 보·교육의 실행 ····· 97
[영역 4] 상호작용 ····· 104
[영역 5] 건강과 영양 ····· 112
가. 청결과 위생 ····· 112
나. 질병관리 ····· 117
[영역 6. 안전] ····· 120
가. 실내외 안전관리 ····· 120
나. 보호와 대처방안 ····· 124

부록. 문서목록 ····· 129

Ⅰ.
총론

1.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의 필요성

1994년 '신촌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이 개원한 이래 매년 새로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어린이집이 개원하였다. 최근에는 다소 그 속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2013년 4월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하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전국에 65개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의 확산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 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공동체적 보육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가치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공동육아의 실천에 있어 핵심적인 일이며, 특히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행복권이라는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육아의 구성원들은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만들어 서로의 가치관과 일상적 삶을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부모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해나간다. 공동육아의 가치는 구성원들이 그 터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터전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어야 한다.

공동육아는 우선적으로 각 터전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수반하는 양적 성장을 통해 그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초기의 공동육아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출발했다. 즉 삶과 교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일상' 그 자체에서 '육아'와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낸 후인 2004년 10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이란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공동육아가 지나온 그동안의 역사와 성과를 담아내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실천해온 현장의 경험을 공동의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이 자리를 통해 공동육아의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터전에서는 아이들의 생태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실천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출발하는 터전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동육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터전의 교육적 환경을 구성해야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을 위한 각 영역별 자료와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터전 설립을 위한 안내와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토대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시행해왔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은 각 어린이집이 먼저 인증기준에 따라 현재의 터전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여 개선과정을 거친 후, 실사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인증제도는 공동육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최소한의 공동육아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증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육아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로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관에 준한 운영체계, 민주적인 관계 및 소통, 보·교육과정의 실현, 교육적 환경구성 등의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며,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데 더욱 의미를 둔다.

2005년 공동육아는 보육의 보편화 추세와 공동육아의 대내외적인 활동의 결과 '부모협동어린이집'로 법제화됨으로써 사회제도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국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보육의 질 향상과 재정 지원을 내세워 보육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공동육아에서는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보다 향상된 사회공동체적 보육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와 함께 '공동육아 인증' 제도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 인증'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각 터전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인증지침서>(이하 '인증지침서')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보다 강화하여, ‘초기인증’은 물론 정기적인 ‘재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각 터전의 운영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서 개별적인 터전 차원에서 노력해오던 공동육아의 질적 향상 노력을 전체 공동육아 차원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 것이다.

본 ‘인증지침서’가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나 개별 터전의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동육아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육아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공동육아가 대표적인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장시켜갈 수 있도록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를 구축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는 법인의 특별위원회로 독립 구성되며, 초기인증, 재인증,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대상선정, 현장방문, 현장실사, 인증심의 및 결정에 이르는 인증의 전 과정을 전담한다.

인증위원은 공모를 거쳐 부모와 교사, 법인 관계자 등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인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인증위원의 자격은, 부모의 경우 만 2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과 이사 역할을 역임한 자, 교사의 경우 만 6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과 대표교사 역할을 역임한 자, 법인 관계자는 법인의 직함을 갖고 있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인증위원은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각 현장에서 공동육아의 가치구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증지표에 따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3. 인증지침서의 구성

인증지침서의 지표는 크게 운영부문과 교육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영부문은 정관 및 제반 규정, 운영기구, 조합원, 보육교직원, 재정 관리, 회원활동 및 연대활동의 6개 영역, 43개 항목으로 구성했고, 교육부문은 터전 환경, 터전 운영, 보·교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 영역, 71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각 지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하여 각 인증지표에 해설을 덧붙였다. 여기에는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이 섞여서 서술되어 있다. 초기인증 시에는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재인증 시에는 공동육아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수준을 제시하여 가능한 필수사항은 물론 권장사항까지 갖추도록 한다. 지표를 수준별로 나누어 점수화하지 않은 것은 질적인 평가를 양화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각 터전의 여건에 따라 질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다'는 필수사항이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등은 권장사항이다.

본 인증지침서는 공동육아의 각 터전이 인증과정을 통하여 협동조합으로서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어린이집으로서 보·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향상시키도록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과 준거들은 강제적인 지시나 평가의 척도가 아니라 조력과 지원의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4.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의 개정 배경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신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구체적인 준거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의 검토와 수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몇 년간의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기준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6년부터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 지표 및 지침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초기인증, 재인증,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와_운영부문 5개영역 41개, 교육부문 6개영역 67개 총 108개의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2007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발간하였다.

2007년 이래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에 참여한 조합들은 '재인증'이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운영 및 보·교육을 보완하고,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도 운용의 미흡함과 내용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2010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 사업을 시행해오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1차 개정작업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인증지표 구성 및 기준의 적절성 검토, 인증 절차 체계 보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그동안의 인증사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함께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발맞추어 공동육아의 가치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제도가 계속해서 진화해야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인증지표의 전면적인 개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각 터전의 공동육아 가치실현의 방식, 협동조합의 운영방식,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방향에 더 집중하여 2차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2차 개정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2007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및 지침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실제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에 의뢰하여,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인증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내용들을 수집하고, 기존 인증지침서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참고하여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두 번째 단계는 집필 작업 내용을 모아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 개정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지표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듭하여 새로운 인증체계 및 지표와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마련하였고, 2015년 4월 인증절차와 지원방식에 대해 부분개정을 하였다. 또한 인증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

기 위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의 자문을 거쳐 본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5.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에는 초기인증과 재인증, 사후관리가 있다.

초기인증은 어린이집 개원 후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재인증은 구성원들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로서, 초기인증 3년 이후에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재인증 통과 이후 3년 이후에 1회 받으며, 사후관리 3년 이후에 2차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초기인증은 인증심의과정을 통해 인증통과, 인증유보, 인증탈락을 결정한다.

-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했을 경우.
-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수정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유보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이를 수정한 이후 재실사과정, 또는 재심사과정을 거쳐 인증한다.

재인증은 인증심의과정을 통해 인증통과, 인증유보를 결정한다.

-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고 권장사항을 충족한 경우.
-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충족되었더라도 권장사항이 미비된 경우 인증유보하게 되며, 유보사유를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이를 수정한 이후 재심사한다.

사후관리는 인증심의과정을 통해 인증유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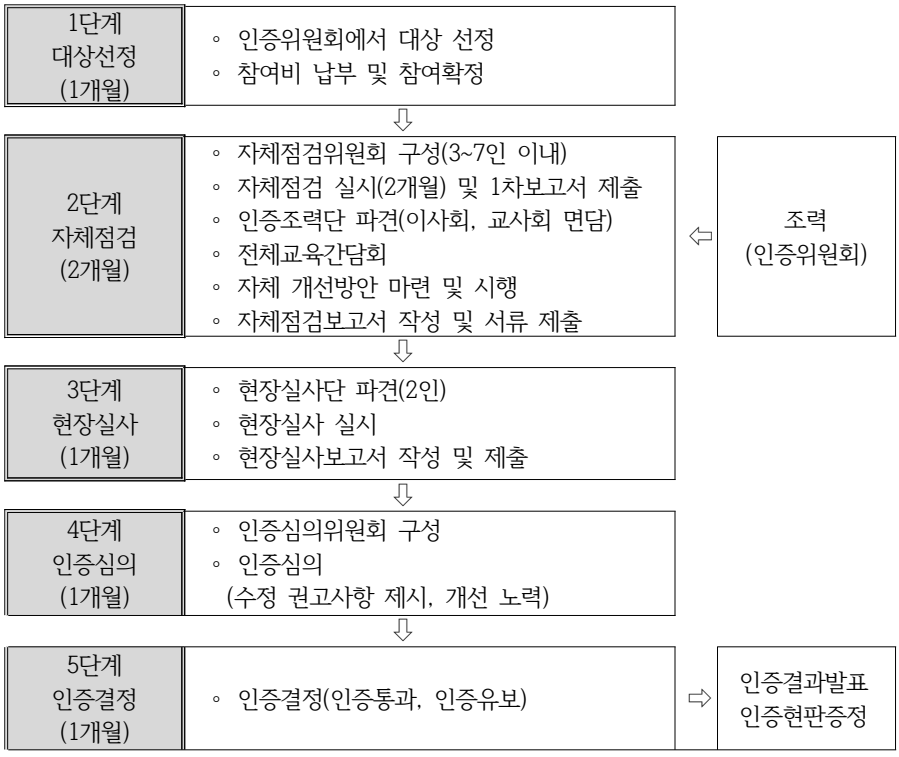
6.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과정

초기인증은 ① 초기인증 대상 선정 ② 자체점검(1차 보고서 제출-조력-전체교육간담회-자체점검보고서 제출) ③ 현장실사 ④ 인증심의(권고안 발송 후 답변서 검토) ⑤ 인증결정 과정을 거친다.

재인증은 ① 재인증 대상 신청 ② 전체조합원 설명회 ③ 자체점검(1차 보고서 제출-조력 및 간담회-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④ 현장실사 ⑤ 인증심의(권고안 발송 후 답변서 검토) ⑥ 인증결정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후관리는 ① 사후관리 대상 선정 ②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③ 인증위원회 검토 과정으로 진행된다.

< 초기인증 과정 >



1) 초기인증

초기 인증은 대상선정, 자체점검, 현장실사, 인증심의 및 결정 과정을 거친다.

1단계 : 대상 선정

대상선정 단계는 초기인증 대상 선정 및 공문 발송, 참여비 납부 및 참여 확정으로 이루어진다.

■ 초기인증 대상

○ 준비모임으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 후 개원한 경우, 조합원 충원이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교사회가 구성된 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초기인증 대상이 되며 1년 이내에 초기인증을 받아야 한다.

○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 3개월 이후에 초기인증 대상이 되며, 1년 이내에 초기인증을 받아야 한다.

준비모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 개원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준비모임에 10가구 이상 참여하게 되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준비모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회원 가입을 받는다. 회원 가입 이후 준비모임은 전화 상담, 정보 수집, 교육 등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개원 일정과 운영방식을 정해나간다.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11인 이상이 되면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와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1가구 이상, 조합 규모의 70~80% 이상 충원되었을 때 개원하도록 한다.

■ 대상선정

○ 인증위원회는 초기인증 대상을 선정 공지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단, 어린이집의 내부사정과 인증위원회의 진행일정에 따라 선정 시기는 조절될 수 있다.

■ 소요기간

○ 초기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6개월 소요된다.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에 따라 2개월 진행된다.

■ 인증 참여비

○ 초기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초기인증 참여비는 30만원(정원 20인 이하) 또는 35만원(정원 21인 이상)이며, 대상선정 공문 수신이후 2주일 내에 정해진 계좌에 납부한다.

○ 환불 : 인증참여 중에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참여비를 환불할 수 있다.

구분	자체점검 시작 이전	조력단 파견 이후~ 현장실사단 파견 이전	현장실사단 파견 이후
환불	100%	50%	0%

■ 초기인증 참여취소가 되는 경우

① 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인증 진행 중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인증위원회에서 더 이상 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초기인증 참여취소 절차

① 어린이집에서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인증위원회에게 보고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한다.

2단계 : 자체점검

자체점검 단계에서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중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조합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서자료를 준비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은 교사회와 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체점검을 진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에게 인증 참여의 필요성 및 의미를 안내한다.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조합이사장, 원장(대표교사), 교사 1인, 부모 2~4인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

○ 부모의 경우 조합의 이사이거나 이사를 역임한 자

○ 자체점검기간 : 2~3개월

■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위원은 초기인증의 토대가 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숙지한다.

○ 인증지침서를 이용하여 운영과 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1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간다.

○ 인증위원회는 조력단을 파견하여 상담, 현장 방문, 면담 등의 도움을 준다.

○ 조력의 일환으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 자체점검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에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조력이란

① 조력단 2인 파견
② 조력은 방문, 관찰, 교사회와 이사회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력내용은 현장관찰, 인증관련 질의 및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④ 조력일정은

9:00~9:30	현장 도착, 조력일정 논의, 현장관찰 시작
2:30~3:30	원장(대표교사) 면담 및 서류 검토
~6:00	현장관찰 마무리
6:00~7:30	교사회 면담
8:00~	이사회 면담

☞ 전체조합원교육간담회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

* 위의 일정은 어린이집의 하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단계 : 현장실사

자체점검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단이 파견된다. 현장실사는 현장실사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찰, 보고하는 과정이다.

■ 현장실사 실시 전

○ 인증위원회는 현장실사단 2명을 선정한다.

○ 현장실사일은 조합과 협의 후 인증위원회가 정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공지한다.

○ 어린이집은 현장실사일에 특별한 행사가 없고, 현원 2/3이상이 출석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에는 인증위원회가 자격을 부여한 현장실사단 2인이 파견된다.

○ 현장실사 시간

현장도착 예정시간 오전 8:30~9:30

실사종료 예정시간 오후 5:30~6:30

○ 실사 당일 어린이집에서는 인증지표와 관련하여 실사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놓는다.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사단은 자체점검보고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루 일과와 교육활동 관찰,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4단계 : 인증심의

현장실사가 완료되면 인증위원회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심의를 진행된다.

○ 인증위원회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서류, 실사보고서, 인증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심의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한 수정, 권고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문서로 제시한다.

5단계 : 인증결정

어린이집에서 수정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한 후 인증한다.

①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했을 경우. 인증위원회 인증통과 결정 이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과정을 거친다.

②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수정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경우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초기인증의 필수요소

①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한 운영
② 재정 투명성(월 재정 운영 공유)
③ 부모참여 제도화(날적이, 방모임, 일일교사, 총회 등)
④ 부모와 교사의 민주적 관계 및 소통
⑤ 공동육아 교육과정 실현
⑥ 영양과 급식 및 안전에 대한 기준
⑦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⑧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

■ 초기인증 유보에 대한 조치

○ 유보는 '재실사'와 '재심사'로 구분되며, 심의를 유보하는 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수정 이후 재심의한다.

○ '재실사'가 필요한 경우, 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수정한 후 재실사, 재심의한다. 이때 참여비의 50%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6개월 이내 재신청, 자체점검, 실사, 심의 등으로 기존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참여비의 100%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증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초기인증 통과에 대한 조치

○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증서 및 현판을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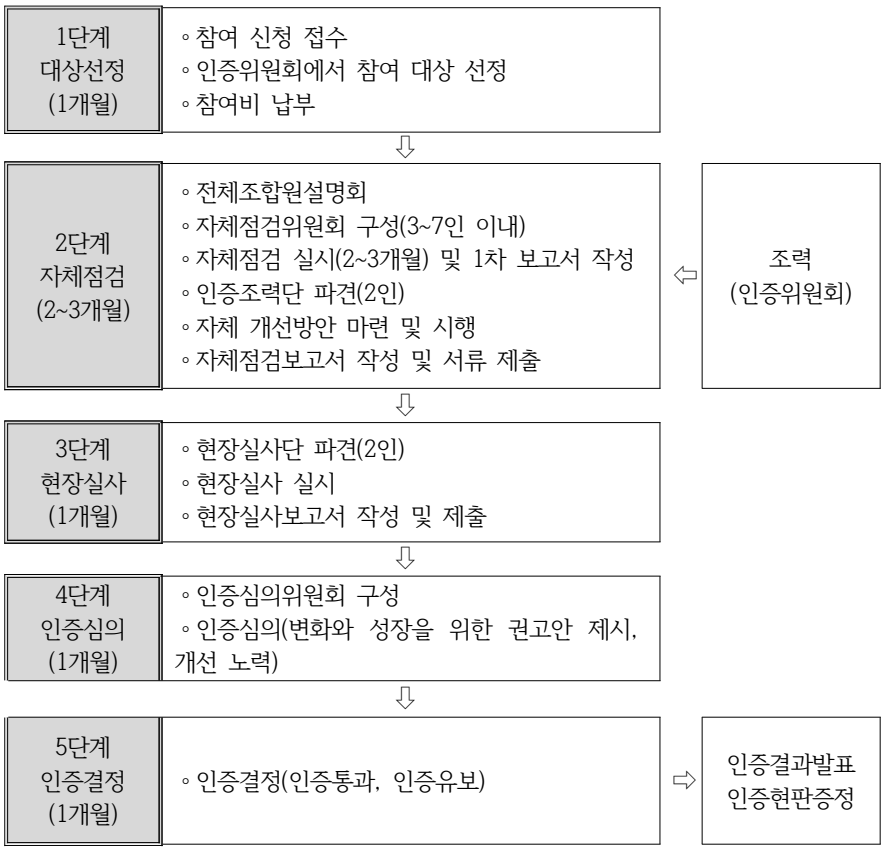
○ 초기인증 통과시설은 인증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초기인증 이후 3년이 되면 반드시 재인증에 참여한다.

2) 재인증

재인증은 인증신청, 대상선정, 전체조합원 설명회, 자체점검, 현장실사, 인증심의 및 결정 과정으로 진행된다.

< 재인증 과정 >



1단계 : 대상선정

대상선정 단계는 재인증 참여 신청, 대상 선정, 참여비 납부 및 참여확정 으로 이루어진다.

■ 재인증 대상

○ 초기인증을 통과한지 3년 이상 된 어린이집

○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재인증 참여신청서를 작성, 접수한다.

■ 대상선정

○ 인증위원회는 개원시기, 현 구성원 연차 등을 고려하여 재인증 대상을 선정공지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 소요기간

○ 재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6~7개월 소요된다.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에 따라 2~3개월 진행된다.

■ 재인증 참여비

○ 재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재인증 참여비는 30만원(정원 20인 이하) 또는 35만원(정원 21인 이상)이며, 대상선정 공문 수신이후 2주일 내에 정해진 계좌에 납부한다.

○ 환불 : 인증참여 중에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참여비를 환불할 수 있다.

구분	자체점검 시작 이전	조력단 파견 이후~ 현장실사단 파견 이전	현장실사단 파견 이후
환불	100%	50%	0%

■ 재인증 참여취소가 되는 경우

① 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인증 진행 중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인증위원회에서 더 이상 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재인증 참여취소 절차

① 어린이집에서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인증위원회에게 보고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한다.

2단계 : 자체점검

자체점검 단계에서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중 필수항목과 권장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조합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서자료를 준비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은 교사회와 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체점검을 진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에게 인증 참여의 필요성 및 의미를 안내한다.

■ 전체조합원설명회

○ 인증위원회가 조력단을 파견하여 재인증의 의미와 절차, 공동의 목표 설정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조합이사장, 원장(대표교사), 교사 1인, 부모 2~4인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

○ 부모의 경우 조합의 이사이거나 이사를 역임한 자

○ 점검기간 : 2~3개월

■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위원은 인증의 토대가 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숙지한다.

○ 자체점검보고서를 이용하여 운영과 교육 전반을 점검해 본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간다.

○ 인증위원회는 조력단을 파견하여 상담, 현장 방문, 면담 등의 도움을 준다.

○ 자체점검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에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조력이란

① 조력단 2인 파견
② 조력은 방문, 관찰, 교사회와 이사회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력내용은 현장관찰, 인증관련 질의 및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④ 조력일정은

9:00~9:30	현장도착, 조력일정논의, 현장관찰 시작
2:30~3:30	원장(대표교사) 면담 및 서류 검토
~6:00	현장관찰 마무리
6:00~7:30	교사회 면담
8:00~	이사회 면담

* 위의 일정은 어린이집의 하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단계 : 현장실사

자체점검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단이 파견된다. 현장실사는 현장실사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찰, 보고하는 과정이다.

■ 현장실사 실시 전

○ 인증위원회는 현장실사단 2명을 선정한다.

○ 현장실사일은 조합과 협의 후 인증위원회가 정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공지한다.

○ 어린이집은 현장실사일에 특별한 행사가 없고, 현원 2/3이상이 출석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에는 인증위원회가 자격을 부여한 현장실사단 2인이 파견된다.

○ 현장실사 시간

현장도착 예정시간 오전 8:30~9:30

실사종료 예정시간 오후 5:30~6:30

○ 실사 당일 어린이집에서는 인증지표와 관련하여 실사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놓는다.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사단은 자체점검보고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루 일과와 교육활동 관찰,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4단계 : 인증심의

현장실사가 완료되면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심의가 진행된

다.

○ 인증위원회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서류, 실사보고서, 인증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심의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과 권장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문서로 제시한다.

5단계 : 인증결정

어린이집에서 '변화와 성장을 위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한 후 인증한다.

①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고 권장사항을 충족한 경우. 인증위원회 인증통과 결정이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과정을 거친다.

②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충족하였더라도 권장사항이 미비된 경우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재인증의 필수요소

①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한 운영
② 재정 투명성(월 재정 운영 공유)
③ 부모참여 제도화(날적이, 방모임, 일일교사, 총회 등)
④ 부모와 교사의 민주적 관계 및 소통
⑤ 공동육아 교육과정 실현
⑥ 영양과 급식 및 안전에 대한 기준
⑦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⑧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 재인증 유보에 대한 조치

○ 재인증이 유보되었을 경우, 유보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유보사유를 수정한 이후 재심사한다.

○ 유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증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재인증 통과에 대한 조치

○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증서 및 현판을 발급한다.

○ 재인증 통과시설은 인증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 재인증 이후 3년이 되면 반드시 사후관리에 참여한다.

3)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대상선정,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인증위원회 검토 과정으로 진행된다.

< 사후관리 과정 >

1단계 대상선정 (1개월)	◦ 인증위원회에서 참여 대상 선정 ◦ 설명회 참여, 참여 확정
⇩	
2단계 자체점검 (2~3개월)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7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2~3개월)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	
3단계 검토과정 (1개월)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자체점검보고서 검토

⇨ 공문 발송

1단계 : 대상선정

대상선정 단계는 사후관리 대상 선정, 설명회 참석, 참여 확정으로 이루어진다.

■ 사후관리 대상 및 선정

○ 재인증을 통과한지 3년 이상 된 어린이집으로 1회 참여

○ 인증위원회는 개원시기와 현 구성원 연차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 소요기간

○ 사후관리는 약 4개월 소요된다.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에 따라 2~3개월 진행된다.

2단계 : 자체점검

자체점검 단계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중 필수항목과 권장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조합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사후관리는 교사회와 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체점검을 진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에게 재인증 사후관리 참여의 필요성 및 의미를 안내한다.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조합이사장, 원장(대표교사), 교사 1인, 부모 2~4인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

○ 부모의 경우 조합의 이사이거나 이사를 역임한 자

○ 점검기간 : 2~3개월

■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위원은 인증의 토대가 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숙지한다.

○ 자체점검보고서를 이용하여 운영과 교육 전반을 점검해 본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간다.

○ 자체점검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에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3단계 : 검토과정

인증위원회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에 들어난 재인증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노력 정도를 검토하여, 이를 어린이집에 안내한다.

○ 방문지원 :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재인증 유지 관리와 상담을 위해 방문 지원할 수 있다. 법인 인증위원이 방문상담하고 필요하면 부모, 교사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다.

Ⅱ.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1. 운영부문

영역 1. 정관		방 법
가. 정관	1-1 정관의 제정	문서
나. 운영규정	1-2 운영규정의 제정	문서
다. 인사 및 급여규정	1-3 인사 및 급여규정의 제정	문서

영역 2. 운영기구		방 법
가. 총회	2-1 총회 준비와 진행	문서,면담
나. 이사회	2-2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문서,면담
	2-3 이사회의 진행과 기록	문서
	2-4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문서,면담
	2-5 연간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	문서
다. 교사회	2-6 교사회의 협력적 업무분담	문서,면담
	2-7 교사회의의 진행과 기록	문서
	2-8 교사회와 부모의 의사소통	문서,면담

영역 3. 조합원		방 법
가. 조합원 현황과 모집	3-1 조합의 규모와 충원	문서
	3-2 터전에 대한 정보안내	문서
	3-3 조합 가입절차	문서
나. 조합원교육 및 활동	3-4 조합원교육 계획 및 실행(평가보고)	문서,면담
	3-5 신입조합원교육	문서
	3-6 조합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면담(홈피)
	3-7 부모참여(소위원회, 방모임)	문서(홈피)

영역 4. 보육교직원		방 법
가. 채용	4-1 채용	문서
	4-2 자격조건	문서
	4-3 채용절차	문서
	4-4 채용 및 인사 관련 문서	문서
	4-5 근로계약서	문서
나. 복지	4-6 노동조건개선위원회	문서
	4-7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문서
	4-8 사회보험 가입	문서

영역 4. 보육교직원		방 법
다. 교육	4-9 신입교육(계획, 실행, 평가 보고서)	문서
	4-10 현직교육(계획, 실행, 평가 보고서)	문서

영역 5. 재정 관리		방 법
가. 어린이집 신고 및 보험 가입	5-1 어린이집 종류	문서
	5-2 임대 및 매입 조건	문서
	5-3 보험	문서
나. 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5-4 예산	문서
	5-5 결산	문서
	5-6 급여	문서
다. 협동조합 재정 관리	5-7 출자금	문서
	5-8 가입비	문서
	5-9 조합비	문서
라. 어린이집 재정 관리	5-10 보육료	문서
마. 재정문서 관리	5-11 재정문서 관리	문서,관찰

영역 6. 회원활동과 연대활동		방 법
가. 회원활동	6-1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면담
나. 연대활동	6-2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	면담
	6-3 지역사회와의 연대	면담,문서
	6-4 교사회의 연대	면담,문서

2. 교육부문

영역 1. 터전 환경		방 법
가. 바깥 환경	1-1 마당	관찰
	1-2 나들이 장소	관찰, 면담
	1-3 텃밭	관찰, 면담
나. 실내 환경	1-4 채광과 조명	관찰
	1-5 가구와 벽면 구성	
	1-6 방의 배치	관찰
	1-7 영유아의 휴식공간	관찰
	1-8 교사를 위한 공간	관찰
	1-9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소	관찰, 문서
	1-10 기저귀 가는 장소	관찰
나. 보·교육활동 자료	1-11 언어활동자료	관찰
	1-12 탐구활동자료	관찰
	1-13 표현활동자료	관찰
	1-14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	관찰
	1-15 전래놀이자료	관찰

영역 2. 어린이집 운영	방 법
2-1 방 구성	문서
2-2 신입 영유아의 적응절차	문서
2-3 영유아에 대한 문서관리	문서

영역 3. 보·교육과정		방 법
가. 보·교육 계획 및 평가	3-1 보·교육 계획의 수립	문서
	3-2 보·교육 계획의 균형 및 통합성	문서
	3-3 보·교육 실제의 평가	문서
	3-4 보·교육 실제의 관찰 기록 및 반영	
	3-5 보·교육 계획 및 평가의 순환성	
나. 보·교육내용의 구성	3-6 공동체교육	문서
	3-7 생태교육	문서
	3-8 생활문화교육	문서
	3-9 표현교육	문서

영역 3. 보·교육과정		방 법
나. 보·교육내용의 구성	3-10 기본생활습관교육	문서
	3-11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문서
다. 보·교육의 실행	3-12 등원 및 귀가	관찰
	3-13 아침모둠	관찰
	3-14 나들이	관찰,면담
	3-15 점심 및 간식	관찰
	3-16 낮잠 준비 및 낮잠	관찰,면담
	3-17 모둠활동	관찰,면담
	3-18 자유놀이	관찰
	3-19 하루 일과의 흐름	관찰

영역 4. 상호작용	방 법
4-1 영유아에 대한 평등한 대우	관찰
4-2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반응	관찰
4-3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관찰
4-4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 지도	관찰
4-5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관찰
4-6 영유아 놀이의 교사 참여	관찰
4-7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수용	관찰
4-8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관찰

영역 5. 건강과 영양		방 법
가. 청결과 위생	5-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유지	관찰,문서
	5-2 실내 환기와 온도 및 습도 조절	관찰
	5-3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유지	관찰,문서
	5-4 주방 공간과 설비,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관찰,문서
	5-5 마실 물과 물 컵의 관리	관찰
	5-6 교사와 영유아의 청결 유지	관찰
	5-7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관찰,문서
	5-8 놀잇감의 청결	관찰,문서

영역 5. 건강과 영양		방 법
나. 질병관리	5-9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도	문서
	5-10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문서
	5-1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보호	문서
	5-12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문서
	5-13 영유아를 위한 먹거리	관찰,문서

영역 6. 안전		방 법
가. 실내외 안전관리	6-1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관찰,문서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관찰,문서
	6-3 각 방의 실내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관찰,문서
	6-4 위험한 물건의 보관	관찰
나. 보호와 대처방안	6-5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관찰,문서
	6-6 영유아의 인계과정	관찰,문서
	6-7 나들이 안전관리	관찰
	6-8 나들이 차량운행	관찰,면담
	6-9 안전공제회(상해,화재,배상보험) 가입 및 공지	문서
	6-10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	관찰,문서
	6-11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교육	문서

Ⅲ.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해설

1. 운영부문

[영역 1] 정관 및 제반 규정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조합의 정관, 운영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을 조합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에 맞게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각 규정에는 공동육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는 규약들을 명시하는데, 여기에는 공동육아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일정한 기준과 준거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정관 및 제반 규정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터전운영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회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 그 외, 각 조합별로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가. 정관

1-1	**정관의 제정**
	공동육아의 철학에 기초하여 정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다.

정관에 협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의 범위와 조합원의 자격,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과의 관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출자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하며 또 회계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도 명문화해야 한다.

이사회 및 총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정관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항상 논의할 때마다 정관을 확인하여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운영규정

1-2	운영규정의 제정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합 참여 및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 터전의 실정에 맞게 마련하되 공동육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해야 한다. 이때 협동조합과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분리할 수도 있다.

다. 인사 및 급여 규정

1-3	인사 및 급여규정의 제정
	인사 및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한다.

인사규정에는 인사규정의 총칙과 인사위원회, 임면, 보직, 복무, 교사교육, 휴직 및 병가, 퇴직, 표창과 징계. 해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사관리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르며, 공동육아 노동기준안을 참조한다. 고용,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 있는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급여규정에는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신입교사 채용 시 인사 및 급여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영역 2] 운영기구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먼저, 공적인 조직체로서의 운영기구를

갖추어 상호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공동육아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운영기구로는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조합 운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이사회',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회'가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조합운영은 이사회를 주축으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이사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조합이 안정적이고 활력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조합원 관리, 정부지원체계 확보, 지역연대사업 등에 주력한다. 어린이집 운영은 교사회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일과와 터전환경 등 보·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합의 전체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나 공유해야할 사항은 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 총회

2-1	**총회 준비와 진행**
	총회를 위한 준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지하고 전체자료집, 출석부와 함께 문서로 보관한다.

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조합의 해산과 합병·분할과 같은 조합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관의 개정,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조합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재산문제에 관한 사항, 원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결정,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과 같은 주요 인사사항, 출자금·가입비·보육료·조합비에 대한 결정,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는데, 정기총회는 재정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평가와 신년도 사업계획안 인준이 이루어진다. 즉, 이사회, 교사회, 각 소위별 평가와 계획이 발표된다.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실

시되는데, 바람직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는 회기 중간에 임시총회를 통해 1년 사업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총회는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조합원의 수가 10가구 미만이거나, 초기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안정화를 위해, 매월, 격월 또는 분기별로 총회를 열어 전체 결의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참여의식과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전 조합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만큼 총회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운영·재정부문)를 두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노력은 물론 논의해야할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내용을 숙지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제안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 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심한 사전 준비는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회 후에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조합원들은 회의록을 확인하여 빠진 것이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사회에 요청한다. 수정 요청이 없으면 이사회는 회의록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회의록에 의장, 이사, 서기가 서명하여 출석부와 함께 보관한다.

나. 이사회

2-2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소위별 역할과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조합의 사업을 실행하며, 조합운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논의, 결정, 집행하며, 인사와 재정 책임을 지는 핵심 단위로서 조합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집행되어야한다. 조합 운영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만큼 반드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이사회 구성원은 공적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기정체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이사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적인 운영을 처음 해보는 조합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때로는 운영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 운영의 경험이 있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에 참여해 가면서 운영주체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의 역량을 키워가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채, 무조건 순번제로 이사직을 맡기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사회 구성은 조합의 크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사장, 운영이사, 재정이사, 시설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이사로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참여한다. 조합 사정에 따라서 조직·생활문화나 대외협력 등 1~2명의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렵고 운영이 방만해지므로 조합의 규모에 맞게 이사 수를 최소화하여 밀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당 이사는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분담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각 이사별 역할과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3	**이사회의 진행과 기록**
	이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지하고 문서로 보관한다.

이사회는 보통 매월 정기이사회와 사안별 임시이사회로 운영한다. 효율적인 이사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각 소위원회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오거나 논의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렴해온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이 아닌 각 소위원회의 대표로서 발표해야 한다. 회의 진행은 보통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교육활동과 교사회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하고, 각 소위원회 보고 및 안건토의를 한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정리해두고, 결정된 사안은 터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조합원들이 이사회에서의 논의와 결정사항

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는 정관과 규정을 숙지하여, 매 결정사안에 대해 번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조합 운영의 책임단위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2-4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구조를 마련한다.

이사회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운영기틀을 마련하여 항상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운영과 터전생활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공동육아의 조합운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의 논의과정을 알기 어렵고, 자신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에 따라야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절차 및 의견수렴 구조를 마련하여, 조합원들이 공적인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해야하는 안건은 먼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소위원회나 방모임으로 보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한다. 이는 다시 각 소위원회 담당 이사를 통해 이사회로 보고하거나 방모임의 대표(방장)를 통해 취합하여 이사회로 보고하도록 한다. 그 밖에 각 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소모임을 꾸려 의견수렴의 공식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위원회와 방모임의 내용은 꼭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

2-5	**연간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
	이사회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기간별 사업을 평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하나의 공적인 조직체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확대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1년 단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상

적인 사업영역과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연간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여 조합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온다.

조합의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중장기 계획 속에서 한해의 목표를 세운 다음, 조합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한해의 목표에 따른 분야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진행과정에서는 재정 안정화와 조합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 실적을 축적하여 조합의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각 이사들은 기간별 사업평가를 하고 방모임,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평가도 취합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 총회 때 중간점검 차원에서 사업평가를 하는 것이 좋으나, 적어도 년 1회 이상은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다. 교사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삶의 질은 영유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적 전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활해야만 보·교육의 질 또한 담보될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부모들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 공동체와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삶의 질은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보·교육과 관련된 의견을 부모들과 나누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교사들 간에도 상호 이해를 통한 배려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발간한 <소통, 화통, 대통한 교사회 리더십을 위하여> 등 관련 발간물을 활용할 수 있다.

2-6	**교사회의 협력적 업무분담**
	교사회의 업무분담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실행한다.

교사회의 협력적 업무분담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 역할 나누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교사들은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한 자기 업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동료의 몫까지 함께 채워간다는 상호 배려하는 마음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는 협업업무가 많고, 잡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기 때문에 터전 안팎으로 생기는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나누어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분명히 알아야하며, 공동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행정, 터전정리와 관리, 교육활동 등 교사회의 업무분담은 내용에 따라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교사의 전공이나 특기에 맞추어 역할을 분담하면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고 교육적 효과도 크다.

2-7	**교사회의의 진행과 기록**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지한다.

교사회는 월별, 주간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터전운영에 필요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여 교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회의 회의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교육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교육실행도 잘 이루어진다.

교사회의는 보통 아이들의 낮잠시간을 이용한 주 1~2회의 '낮회의', 토요일 또는 야간시간을 이용한 월 1회의 '긴회의', 그리고 상·하반기 총회를 준비하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교육평가회의'가 있다.

회의내용으로는 교육활동의 계획 및 평가,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지도 방향, 개별상담에 필요한 자료 취합, 역할분담에 대한 평가, 조합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회의내용을 미리 교사들에게 알려서 각자 회의를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원장이나 대표교사 역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교사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어야하며, 개인에 대한 민감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공지해야 한다.

공동육아의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기본으로 하며, 결정은 다수결 원칙보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나아가, 효율성보다는 공동체성을, 의견 일치보다는 상호이해를 더욱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교사회와 부모의 의사소통
2-8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교사회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회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개별적인 의사전달보다는 이사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결정은 각 소위원회나 방모임, 총회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부모 사이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날적이가 있고, 정기적인 모임으로는 월 1회 방모임이 있으며, 년 1회 이상의 개별면담이 있다.

날적이는 교사와 부모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영유아에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통로가 된다. 날적이는 쓰기와 읽기를 통한 대화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성찰적으로 만나고 상대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 상호주관적 관계를 갖게 된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에게 날적이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지금의 삶을 물어보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방모임은 터전생활과 영유아들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교육적인 제안과 토론을 하는 동시에 교사와 부모간의 이해와 친목을 다지는 자리이다. 방모임을 위해 교사회에서는 사전에 교육활동평가서와 계획서를 준비한다.

개별면담은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교사와 부모가 생각을 맞춰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일반적으로 초기면담 시에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줌으로써 내 아이의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후기면담 시에는 담임교사로부터 아이의 터전생활에 대한 태도와 관계 등 성정과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연간 정기면담 외에 필요시에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신입 영유아는 적응을 돕기 위해 보다 긴밀한 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하

다. 그 외 교육간담회, 연석회의 등 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만남을 할 수 있다.

공동육아에서는 영유아와 함께 부모와도 전면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반자로 지내게 된다. 그러나 관계를 중요시하다보면 자칫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열린 관계, 또는 신뢰관계로 오인될 수 있다. 사적인 친밀관계 자체가 관계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와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 3] 조합원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보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구성원으로서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조합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며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정관에 따른 운영규정을 두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충원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의 운영은 공동육아에 대한 의식적 공감, 자발적 참여, 잘 훈련된 민주적 역량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원들 간의 인식의 편차를 좁히고 서로 상이한 견해나 이해를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열린 소통과 참여구조 만들기, 체계적인 조합원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조합에 따라서는 교사조합원제도를 실시하여,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을 포괄해서 '조합원' 이라고 지칭하나 본 지침서에서 조합원은 부모조합원으로 국한한다.

가. 조합원 현황과 모집

3-1	조합의 규모와 충원
	조합의 규모는 운영하기에 적당하며, 충원계획을 갖고 있다.

조합의 규모란 대체로 운영규모를 말하며,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기준에 맞게 운영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최소한 11가구 이상이 되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전일제 교사대표체제, 연령별 방구성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합원이 25가구 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부족은 어린이집 재정에 무리를 주고 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충원계획은 우선 방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향후 3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터전에 대한 정보 안내**
	터전에 대한 정보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터전에 대한 정보 안내는 간단한 자료집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철학, 연혁, 운영형태, 방구성 등에 대하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홈페이지와 각 어린이집의 온라인을 활용한다. 그 외 방법으로 어린이집 홍보자료집, 공동육아 안내책자, 어린이집소식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지역의 생활정보지나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협조를 구해서 공동육아를 홍보하거나 지역 내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3	**조합 가입절차**
	조합은 가입절차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안내한다.

조합은 신입 조합원모집을 위한 공정한 가입요건 및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가입 문의가 왔을 때 이에 따라 안내한다.

예로 들면 전화, 방문, 사이트 등을 통한 가입 문의, 설명회, 가입 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 면접, 가입 확정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문의가 들어오면 연락처, 영유아 인적사항, 가입 및 등원 희망연월일 등

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면접시에는 각 조합의 상황에 맞게 공동육아의 교육 철학과 교육환경, 조합원의 역할, 권리와 의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관계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터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교사의 생활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참관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나 영유아의 생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합원교육 및 활동

3-4	조합원교육 계획 및 실행
	연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조합원의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조합원교육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함과 동시에 조합 운영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사회에서는 조합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연 4회 이상의 조합원교육 계획을 세워야한다. 또한 법인이 주최하는 공동육아 입문과정, 2~3년차 조합원교육 등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공동육아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조합들과 연대하여 공동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교육소위원회에서는 조합원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내용을 정하기 위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조합원교육은 무엇보다도 부모들 간에 서로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부모들 스스로에게도 낯선 과제임에 틀림없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로 친밀해져야 한다. 친밀함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주제로는 부모 개인의 특성을 살피고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유형 검사, 공감과 상호 위로를 위한 육아에서의 힘든 점 나누기, 스킨십과 감각을 여는 놀이, 의사소통 방법 등을 다룰 수 있다.

조합원교육은 설립시기와 조합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 초기에는 조합이 운영되기 위한 기초적 수준에서 조합원 간의

인식 통일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의 이념과 교육철학, 공동체의 의미, 아동관,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안정기에는 마을, 돌봄사회, 지속가능 등의 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통합교육, 놀이의 의미 등 영유아 교육에 관한 주제를 통해 보다 교육적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조합의 구성원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조합의 세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원칙과 변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조합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오고 조합의 전통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 운동, 조합의 역사, 선배들의 경험담, 지역공동체의 경험과 역사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3-5	**신입조합원교육**
	신입조합원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신입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 주최의 전체신입조합원교육, 공동육아 입문과정 등에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육아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조합원교육은 서로간의 인식 차이를 좁혀 기존 부모들과 원만하게 융화되고, 공동육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신입조합원이 조합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존조합원이 이끌어주어야 조합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입부모와 기존부모가 '짝손제'나 '멘토'를 정하여 터전생활을 안내해주거나 마실과 품앗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응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입조합원교육 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육아의 이념 및 철학과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형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공동육아 교육내용과 부모참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조합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 및 의무 등을 다루어야 한다.

3-6	조합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조합원 간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마련한다.

공동육아 운동은 육아공동체를 출발점으로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를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공식적 운영체계와는 별개로 조합원간의 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조합원 간의 단합과 친목은 조합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합들살이, 체육대회, 가족여행, 가족 등반모임, 수다모임, 교육모임, 교육지원 모임(헝겊인형, 나무놀잇감, 종이놀잇감 만들기)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7	부모참여
	조합원들은 부모로서 어린이집의 운영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진다.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는 이사회 참여, 소위원회 활동, 방모임, 부모일일교사, 터전시설 개보수 활동, 대청소 및 소청소, 보조교사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육아에서 부모참여는 가족 이기주의와 아이들을 통한 경쟁의 사회적 관성을 극복한 사회적 부모로서 공동체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뜻한다. 즉,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협력하는 것으로 보·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터전을 운영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부모참여로는 보육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참여하거나, 지역자치단체와 국가의 보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내 아이만의 부모가 아니라 터전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되자는 의미로 아빠와 엄마를 줄인 '아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역 4]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각 단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교사, 그 외 계약직 종사자를 말한다. 공동육아에서는 종사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나 역할에 따른 관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필요하며,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관리는 터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 채용

4-1	채용
	어린이집 규모에 맞게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교사회를 구성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인가기준에 따라 정해진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에서는 법적 인가기준보다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수에 비하여 교사수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교적 높은 인건비로 인한 조합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재정 상황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4-2	자격조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철학에 동의하며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보육교직원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철학에 동의하며, 육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 또한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교사로서의 자질, 변화하려는 의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열린 마음, 긍정적인 교육관 등을 채용기준으로 보아야한다.

채용된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 [현장학교 1단계]를 반드시 마치도록 해야 한다.

4-3	채용절차
	보육교직원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채용한다.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조합, 보육정보센터 등의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개 모집을 하며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공개심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부모와 교사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용 절차로는 일차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이차적으로 면접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공동육아와 아동에 대한 이해,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긍정적 사고 여부, 성장하려는 의지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교사로서의 전망을 확인한다. 면접 시에는 편안하고 평등한 분위기로 진행하며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한 후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15일 내에 관할관청에 임면보고를 해야 한다.

4-4	채용 및 인사 관련 문서
	채용서류 및 인사 관련 문서를 구비하여 보관한다.

보육교직원으로 채용된 후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서, 인사기록부,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조회서 등의 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구비하여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안 공동육아 교사교육,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건강검진 그 밖의 신상 변동사항 등을 인사기록부에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채용한 교사는 인사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서를 첨부하여 임면보고를 한다.

4-5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조건을 명시한 것으로서, 특히 교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해당 교사가 각 어린이집의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에 준하여 노동조건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근무조건, 고용조건, 임금조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 때 2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과 교사 본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상례이나, 매년 새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복지

4-6	**노동조건개선위원회**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의미를 조합과 교사가 공유하고, 이를 설치 및 운영한다.

어린이집은 일차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사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공동육아 운동과 제도화 사이의 견인과 견제를 위한 돌봄노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건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조합과 교사는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법인에서 발간한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 노동기준안>을 참고하여 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사들에게는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육아 교육을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연구 및 논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조합은 교사들의 복지를 다양하게 배려하기 위해 부모참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4-7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고지하고 준수한다.

각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과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 노동기준안>을 참고하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인사규정에는 인사규정의 총칙과 인사위원회, 임면 및 보직과 복무, 교사교육, 휴직 및 병가, 퇴직, 표창과 징계, 해고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급여규정에는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신입교사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습기간 안내, 퇴직 시 2개월 전 사전고지의무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교사회의 이직 등 변동사항 시에 혼란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4-8	**사회보험 가입**
	보육교직원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종사자보험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만 교사 임면보고도 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사처우개선비와 같은 각종 정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의무 가입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부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 교육

4-9	**신입교육**
	신입교육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신입교사의 경우에도 공동육아를 처음 접한 교사와 공동육아 경력교사로 나눌 수 있다. 공동육아를 처음 접한 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사회와 이사회가 배려해주어야 한다. 공동육아 경력교사라 하더라도 각 어린이집마다 문화와 정서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교사회 내에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교육은 일

반적으로 내.외부 사전 연수,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교사회 자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전 연수는 현장실습을 의미하는데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순서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내부 연수를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자체 교사회를 통해 공동육아의 교육철학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공유하고, 사전실습을 받게 되므로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된다. 외부 연수는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실습기간을 통하여 교육적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터전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근무시점보다 한 달 정도 미리 채용하여 내.외부 연수를 충분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신입교사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교사회에서 실시하는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과 별도로 교사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각 어린이집의 교육철학 및 운영방침, 교육내용 및 활동, 직무에 대한 설명, 역할분담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 정관 및 제 규정, 고용과 관련된 조건 및 용어들에 대한 설명, 불만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리 절차와 방법, 전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 조직체를 숙지하도록 한다. 자체교육은 교사회의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는 연수기간을 포함한 3개월 전후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타 공동육아 어린이집 경력교사도 역시 적응기간을 갖는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수습기간은 임용과 해임의 기회가 아니라, 교사와 조합의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을 서로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수습기간은 각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의 경우 탄력적으로 적응기간을 갖는다.

수습기간을 마친 후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신입교사에 대한 교사회의 수습기간 평가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교사회의 평가나 본인 평가를 통해서 공동육아운동을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경력교사의 적응평가 경우, 공동육아 교사의 수습교사 평가 틀에 맞추어서 자기평가를 하고, 교사회의 평가, 조합 평가를 한 뒤에 인사위원회에 전달한다. 경력교사는 이전의 경험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수용하기 위한 자세가 필

요하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단위의 평가를 취합하여 최종 평가를 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여 수습교사 평가를 마무리 한다. 평가의 내용에는 교사의 근태, 성장하는 교사로서의 가능성, 성실성 및 공동육아 교사로서의 전망과 비전을 포함해야 한다.

4-10	**현직교육**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현직 교사교육은 연초 교사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교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조합과도 공유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는 다양한 현직 교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현직교육은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필수교육과 연차와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교육이 있다. 공동육아 교사교육은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독려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모형이다.

공동육아 교사에게 연차별로 필요한 단계별 교사성장체계(현장학교)는 필수교육으로 현장학교[기초과정](1단계), [교육실제과정](2단계), [심화과정](3단계), [전문과정](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에 따른 필수 직무교육으로는 신입교사교육, 영양교사교육, 대표교사교육이 있다. 신입교사교육은 어린이집 교사회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하고, 지역단위교사회에서도 신입교사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겨울교사대회는 교사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교육활동을 나누며, 연대하고 대동하는 대회로 각 어린이집에서 교육시간과 교육비를 보장해주며 모든 공동육아 교사가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상시적으로 개설하는 재교육과정(단기교육, 특강), 대동놀이교육(3년차 교사의무참여), 장애아통합 교사교육, 모둠활동(세시와절기, 놀이와노래, 생태나들이, 통합교사 모둠 등), 교사회에서 주관하는 지역교사회의, 외부교육 등 다양한 재교육 참여기회를 갖는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교사회에서는 자체연수 및 재교육을 계획할 수 있다. 자체

연수는 대체로 매년, 매월의 교육평가를 통하여 교사회가 필요한 교육내용을 정하여 자체연수(토론 및 세미나,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 연수방문 등) 및 외부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보육교사로서 대표적인 외부교육은 직능별(영아반, 방과후, 장애통합교육)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으며 연차에 따른 승급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역 5] 재정 관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 어린이집 인가 조건에 맞추어 터전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 관리는 협동조합의 재정과 어린이집의 재정으로 나뉜다. 협동조합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상호부조금 등이며, 어린이집 재정은 보육료를 말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정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집 재정만 해당된다. 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경우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서 협동조합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가. 어린이집 신고 및 보험 가입

5-1	어린이집 종류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 받는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인가를 신청할 때 협동조합 유형인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 받는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인원수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과 21인 이상 시설로 나뉘며, 아동 수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여부, 시설 구비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건물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인가 정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5-2	임대 및 매입 조건
	임대 및 매입 조건은 지역 실정과 협동조합 실정에 비교해서 적절하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터전 조건을 중요시하다보니 낡고 허름하고 후미진 곳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기 쉽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조합원의 접근 용이성, 영유아들의 안전한 생활, 지나치게 높지 않은 임대료, 매입 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에 마당이 넓고 자연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출퇴근이나 영유아의 등하원이 어렵다면 적당한 터전이라 하기 어렵다. 반대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임대료나 매입비가 높으면 재정 부담이 커져 운영의 안정성이 깨지므로 적당하지 않다.

5-3	보험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화재보험(공제),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에 모두 가입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시 인원 50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에도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내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혹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는 차량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나. 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재정 관리는 정확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산은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세우고, 지출은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결산을 할 때는 년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정 관리업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 어린이집 재정 업무는 대표교사와 재정이사가 분담하고, 재정이사의 업무는 반드시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분담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매월 예·결산 내역을 공지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과정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에 적자 재정을 둘러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5-4	예산
	당해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당해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내역을 감안하여 먼저 지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영유아 인원, 교사 변동사항, 정부보조금 변동사항, 물가인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해 협동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내역을 반영한다. 되도록 연말 정산 시에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책정하고, 추가금액(차량비, 들살이비, 나들이비 등)을 걷지 않도록 한다. 예산 편성시 놓치기 쉬운 교사 교육비, 퇴직적립금, 안식월 급여 적립금, 시설비 감가상각비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유의한다.

어린이집 재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 항목을 편성하고, 협동조합 재정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발간한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지침서>의 '조합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5-5	결산
	예산 항목에 따라 지출하고, 매월 결산 보고를 한다.

원칙적으로 지출은 예산에 있는 내역만 지출해야 한다. 예산에 없는 내역을 임의로 결재해서는 안 되며,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예산을 확인하도록 한다. 만일 예산에는 편성되어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 판단되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회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매월 결산을 할 때에는 1일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산하도록 한다. 한해 결산을 할 때는 년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매년, 매월 예·결산 내역은 사이트 등을 통해 반드시 공지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보육통합시스템에는 어린이집 재정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조합원들에게 전체 공지할 때에는 어린이집과 협동조합 재정 상황을 모두 공지한다.

또한, 한해를 결산하고 나면 적자 혹은 흑자가 되는데, 적자분은 해당년도에 처리하여 이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자가 될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5-6	급여
	인건비 지급은 인사규정, 급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근로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교사가 채용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과 각종 규정을 안내해주어야 한다. 교사의 급여와 복지 관련 내역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규정, 급여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말에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갑종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신고는 동일한 근로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다. 협동조합 재정 관리

5-7	출자금
	출자금은 지역 실정과 터전 비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운영비에 섞어 쓰지 않는다.

어린이집 개원을 서두르다보면 장기적인 규모를 예상하지 못한 채 터전을 임대하거나 선정하기 쉽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앞으로 가입하게 될 예상 수요를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적당한 터전 넓이를 선정하며, 적절한 출자금액을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자금은 적을수록 좋지만 이를 위해 영유아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조건의 터전을 임대하거나 선정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아직 충원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출자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거나 인근 지역의 타 공동육아어린이집보다 높아져서도 안 된다.

출자금액을 책정할 때에는 총소요 비용의 110%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억의 임대조건에 25가구의 규모를 예상한다면, 출자금은 400만원이 아니라 넉넉하게 450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초기 조합원들의 가입·탈퇴 유동이 많은 시기에 출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터전 매입 시에는 출자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며, 설립기금(기부금) 등 협동조합의 공적기금제도를 마련하고 장·단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지역의 어린이집으로서 공공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한다.

출자금은 터전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단기차입 이외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섞어 쓰지 않도록 유의한다.

5-8	가입비
	가입비는 시설 규모·사용내역에 맞게 책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가입비는 시설비 용도로 쓴다. 가입비를 운영 적자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말고 시설비 용도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

다. ‘입학금’은 어린이집 입소에 따른 필요경비(상해보험료, 체육복이나 가방 지출에 소요)에 쓰이며 지자체별로 수납한도액이 정해져있으므로 가입비와 혼동하여 쓰지 않는다.

시설비는 매년 예상되는 비용 이외에 갑작스럽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상정하여 관리하는 게 좋다. 만일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도록 한다.

개원 초기에는 새롭게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와 비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터전이 아주 열악한 조건이 아니라면 해가 갈수록 시설비는 줄어들게 된다. 이때에는 가입비 금액을 감액하여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비
5-9	조합비 항목을 적절히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조합비는 보육료와 구분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운영비에 쓰인다. 소요내역은 총회, 조합원교육, 가족모꼬지, 지역연대 사업 등 조합 전체 활동과 이사회 활동, 경조사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법인회비 등이다. 조합비로 지출할 내역과 보육료로 지출할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와 섞어 쓰지 않는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법인회비는 매달 부모 가구, 교사 개인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송금하고 연말에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

라. 어린이집 재정 관리

	보육료
5-10	어린이집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매년 3월 즈음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해야 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재정 관리는 대표교사와 재정이사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며, 누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다. 인건비·교육비 이체, 고정비용 지출(자동이체 적극 활용) 등은 재정이사가 담당하고, 정부 보조금 관련 업무와 수시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지출 관리는 대표교사가 담당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시책 이후로 보조금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으므로 출결관리, 아이사랑카드 결제 관리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마. 재정문서 관리

	재정문서 관리
5-11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관리를 위해 구비서류, 장부, 증빙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관리를 위한 문서들은 구비서류, 장부, 증빙서류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집 재정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모든 재정 문서를 구비 관리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재정 문서 역시 어린이집 재정 문서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준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서, 세입세출결산서, 연도 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급),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대차대조표 등이다.

비치할 장부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봉급대장, 보육료대장, 비품대장 등이다.

증빙서류는 계좌입금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증), 수입.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등이다.

어린이집 관련 문서에는 대표교사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회계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역 6] 회원활동 및 연대활동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구성원인 부모와 교사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개인회원이 된다. 이는 곧 공동육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공동육아의 철학과 이념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공동체적 보육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육아의 지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활동은 물론 단위조합 사이의 연대활동,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단위조합이 독자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조합 사이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조합 사이의 연대활동은 공동육아의 교육환경을 확장시키고 보육정책에 대응하는 등 단위조합의 한계를 뛰어 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지역사회기관 및 다른 단체들과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안에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원활동

6-1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운동을 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 현장방문 등의 현장지원사업, 연구정책사업을 비롯해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진교육, 조합원교육, 부모교육, 공동육아 교사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사업을 통해 각 조합의 운영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회원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운영되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각 개인이나 기관에서 납부하는 법인회비는 공동육아운동을 위해 쓰인다. 따라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어린이집 부모회원, 교사회원 등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 납부의 의무와 함께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회원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 연대활동

6-2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활동은 개별 조합의 이전 경험과 교훈을 통해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자원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도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단위 조합을 넘어 사회공동체적 보육의 장을 확장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로 결성되어 있는 '조합대표자회의'를 활성화하여 조합의 실질적인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조합 간의 연대활동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의 경우 공통의 주제를 잡아 지역사업으로 진행해 보거나 단오잔치, 체육행사, 한가위잔치, 김장 등 지역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거나, 산행이나 다양한 취미소모임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것 등은 좋은 예이다.

6-3	지역사회와의 연대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육아의 특성상, 공동육아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연계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육아가 자칫 지역사회에 외로이 떠있는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그 지역의 특성과 조합의 성격 및 활동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 조합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활동을 하거나 의미 있는 지역행사에 터전을 빌려주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마당을 개방하는 사례들이 있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것도 권할 만하다.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터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 도서관, 소방서, 보건소 등을 나들이 장소로 이용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의 먹을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그 예다. 인근 노인정과 협력하여 동네잔치를 벌이는 등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과의 교류는 영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6-4	교사회의 연대
	지역 교사회 및 타 교사회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다.

공동육아 교사회는 지역의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회와 정기적인 지역교사회 모임을 갖고 있다. 지역 교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사회 사이의 교류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활동을 보다 풍성하게 해준다. 또한 공동육아의 가치와 철학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동료 간의 상호지지와 격려는 교사들이 공동육아에 정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지역교사회에서는 각 터전의 연령별 교육활동이나 장애아교육 뿐만 아니라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연령통합 방 구성 등 교사교육 및 교육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사회 간 교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침체된 곳도 있으나, 각 어린이집 교사들은 연대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한편 일반 보육교사회와 교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에 참석해본다든지, 보육인연합회 행사 및 보육교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장학교' 등 개방된 공동육아 교사교육을 안내하거나 교육모임을 마련하여 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를 통해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영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단위 교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 어린이집과 공동육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2. 교육부문

[영역 1] 터전 환경

터전 환경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구성과 유지에 초점을 둔다. 특히 공동육아에서는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변에 산이나 들, 공원이 있어 나들이하기에 적당하고, 터전에는 마당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수 있어야한다.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 채소를 가꾸어 먹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영유아에게 자연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교재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육아 터전에서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유아에게는 구체적으로 사물을 만지고 느끼는 직접 경험이 중요하며, 놀이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며 세상을 알아간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흥미에 적합한 터전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모든 시설과 설비의 크기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공동육아에서 자연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팎의 균형이다. 안은 문화적 질서를 배우고 익히는 공간이고, 밖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 요구에 따라 맘껏 자기를 표출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균형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성장을 이룬다.

공동육아는 장애영유아 통합을 지향하므로 장애영유아에게도 장애 유형과 발달수준에 상관없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 실내외 어느 곳이라도 접근하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현관문턱이나 방문턱을 없애고 현관 계단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설치하고, 벽에는 보조지지대나 안전 바를 설치한다.

가. 바깥 환경

1-1	마당
	마당이 있고 바깥놀이가 이뤄진다.

공동육아어린이집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마당이다. 마당은 터전의 자연공간으로 물과 흙, 바람과 햇볕이 있는 곳으로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환경이다.

마당은 맘껏 뛸 수 있는 공간이다. 발끝의 힘으로 뛰는 것이 과업인 아이들에게 뛸 자유를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신체운동의 발달과제가 가장 중요한 영유아에게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나가는데 바깥만한 공간이 없다. 작은 흙 마당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탐색거리가 있다.

마당은 드나듦이 자유로워야 하며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실내공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마당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재미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유도가 필요하다.

마당은 흙마당이 좋다. 흙마당은 아이들의 요구대로 변환이 가능하다. 마당은 그림을 그리고, 거친 흙과 부드러운 흙을 분리해 내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놀이를 만들기도 하는 온갖 놀이 공간이 된다.

모래밭은 마당이 넓어 흙 마당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좋다. 모래밭은 주변의 지면보다 낮은 것이 보존하기에 좋다. 모래는 연 1~2회 교체해 주는 것이 위생적이며, 모래밭의 위치는 가능한 현관에서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이 실내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모래밭 놀잇감은 실생활에서 쓰는 생활용품으로 하되 영유아가 다루기 쉬운 가벼운 것으로 마련하고 수납함에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당에는 수도시설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마당이 좁은 경우에는 모래놀이 하나만으로 마당놀이를 대신하기보다는 흙마당으로 훨씬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당과 놀이시설에도 장애영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며, 놀이 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한쪽에 의자를 만들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이동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을 없애는 등 보완시설을 한다.

어린이집 마당이 협소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어린이집 근처의 놀이터나 근린공원 등을 활용하여 실외놀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2	**나들이 장소**
	걸어서 일상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 장소가 있다.

나들이 장소나 나들이를 가는 과정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서 안전한 나들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거리나 장소를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들이는 같은 장소로 반복해서 가는 것이 좋다. 영유아들은 반복적인 경험으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 나들이는 언제 어느 때나 가능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은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새로운 감각과 놀이를 찾으며, 나들이를 통해서 자연을 풍부하게 즐기고 탐색하며 감성을 키운다. 다만, 날씨에 따라 너무 덥거나 추울 때에는 나들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일상적으로 나들이를 하며, 비가 올 때는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나들이를 하기도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 특성을 활용하여 풍부한 지역 나들이 장소를 개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3	**텃밭**
	어린이집 마당 안이나 가까운 근처에 텃밭을 가꾸고 관리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텃밭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텃밭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마당 안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다. 영유아는 텃밭활동을 통해서 직접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고 수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라나는 식물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앎과 동시에 과학적인 탐구력

도 키울 수 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맛보거나 요리해 먹는 등 먹을거리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커다란 화분, 함지박, 폐목재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텃밭을 대신해도 좋다.

나. 실내 환경

1-4	**채광과 조명**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조명시설이 제대로 작동된다.

어린이집의 안과 밖은 자연채광이 잘되고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채광은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실내의 적합한 밝기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놀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내 구조상 자연 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조명으로 대체하되 눈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간접조명을 사용하여 밝기와 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는 각 공간마다 그에 적합한 조명의 밝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장소에는 안정된 느낌을 주는 조명을, 책 읽는 장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잘 보이는 조명을,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밝은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영유아의 보행이 많은 복도나 계단, 세면실, 화장실 등이 어두운 경우에는 센서를 달거나 전등을 상시로 켜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낮잠을 잘 시간에 각 방에서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커튼을 활용하여 채광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마당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의 놀이나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명시설이 영유아의 필요에 따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1-5	가구와 벽면 구성
	가구가 용도에 맞게 갖춰져 있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지향하여 대부분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에 맞는 가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사물함과 공동사물함(이불장, 교구장 등), 모둠상이 용도에 맞게 마련되어야 한다. 사물함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크기와 높이를 조절해야 하고, 선반이나 수납장 등과 같이 좁은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벽면은 크게 색과 공간구성으로 볼 수 있다. 벽지색은 무늬 없는 옅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특정한 벽면 공간을 확보해 전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1-6	방의 배치
	방이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하기 편리하게 나뉘어져 있고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흥미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다수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놀이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실내공간은 연령,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과 영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놀이의 특성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여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영아방은 일상적인 양육(기저귀 갈기, 수유, 손 닦기 등)을 위한 공간과 흥미있는 대상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한다. 또한 활동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넓고 위생적이며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으로 배치한다. 가능하면 욕실, 싱크대, 간단한 조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을 때는 동선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 가까이 방을 배치한다.

유아방은 활동이 많아지므로 흥미에 따라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언어영역, 탐색영역, 미술영역, 휴식공간을 우선 배치한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역할 및 쌓기영역이나 음률영역은 복도나 공통영역에 구성할 수 있다. 한 개의 방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배치하기 어려우면 한두 가지 영역으로 제한을 두

되 필요할 때, 혹은 허락된 시간에 아동들이 이동하여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거실이나 마루는 대집단 활동, 즉 큰 모둠활동이나 생일축하잔치, 혹은 식사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며, 자유놀이시간에는 소집단의 다양한 활동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붙박이가구를 놓기보다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변형이 가능한 기물을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각 방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위치해 있어 장애영유아가 휠체어나 보행기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7	**영유아의 휴식공간**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다.

영유아가 하루 종일 집단생활을 하다 보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활동하고 싶을 때에 이러한 개별적인 요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실내에 마련해야 하며, 방석이나 깔개 등을 이용하여 아늑하게 꾸며 주어야 한다.

휴식공간을 마련할 때 공간의 크기나 위치보다는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공간이 없어서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도 좋으나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구장과 교구장 사이 빈 공간을 천을 이용하여 가려주고, 복도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그림책이나 소음이 적은 놀잇감과 함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특히 영아는 좁은 구석이나 열린 장 속, 가구 틈새에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곳은 교사의 시선이 가지 않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반드시 고려한다.

1-8	교사를 위한 공간
	업무를 하기 위한 교사실이 있으며 별도로 교사의 개인사물함이 있다.

교사회의를 준비하거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를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터전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사실을 마련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교사실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실에는 주로 교사가 업무를 보거나 부모상담, 방문자 상담, 문서나 자료, 교육기자재 등을 보관한다.

또한 교사의 직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사용 개인 소지품을 넣어둘 수 있는 사물함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실에 두어도 되지만 공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각방에 두어도 된다.

교사실은 단순히 교사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교사의 재충전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만나기전 마음을 가다듬고, 동시에 교사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용도로 쓰이는 등, 영유아 위주로 구성된 환경 속에 있는 교사의 불편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다.

1-9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소
	비품과 활동 자료를 보관할 창고 또는 자료실이 있으며, 자료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보·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자료와 비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나 자료실을 마련하고,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곧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활동자료와 비품은 주제나, 계절에 따라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며, 교육계획과 영유아의 흥미, 적응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교체해준다.

터전을 신축할 경우에는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자료실을 고려할 수 있다. 별도의 창고나 자료실이 없는 경우에는 분산 수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자투리 공간이나 선반을 활용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정

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보관함 겉면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용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교재교구 및 비품대장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교육활동의 기록과 보관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는 여러 명의 교사가 사용하게 되므로 사용 용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0	**기저귀 가는 장소**
	기저귀를 가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에게는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배변활동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가 기저귀를 갈아 줄 때는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갈아준다.

기저귀 가는 장소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여 영유아가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다소 시간이 걸린다거나 자꾸 움직이는 경우에는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놀잇감을 2~3개 정도 마련하면, 영아가 놀잇감에 집중하게 되므로 기저귀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

기저귀 가는 장소의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기저귀, 방수요, 위생장갑, 물휴지, 소독액 등의 물품도 구비해야 한다.

나. 보.교육활동 자료

1-11	**언어활동자료**
	언어활동을 위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자료가 다양하고 충분하다.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능력이다. 생활 속에서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대응해 주는 어른이 있을 때 아이는 그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익힌다.

영유아는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집중해서 듣는다. 경청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다. 듣기가 되어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듣기가 되어야 자기 통제력도 생긴다. 상황과 맥락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언어활동이다.

읽기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름표나 신발장 표시, 사물함 표시 등은 아이들이 글자에 관심을 갖는 일차적 표식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구별하고 다른 아이들의 이름도 구별한다. 좋은 책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글자사용 예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어른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말이 글로 표현되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글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쓰기를 위한 준비는 아이들이 긁적거릴 수 있는 칠판(보드판 포함), 종이, 연필, 색연필 등이 구비되어 있어 언제라도 아이들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주면 좋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래들을 따라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도 흉내 내면서 자연스럽게 글자에 대한 연습과 쓰기에 대한 근육발달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살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의 언어활동은 교사와 함께 책을 보거나 교사가 읽어주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림을 보거나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과 발달에 맞는 다양한 그림책을 영아가 직접 꺼내볼 수 있는 위치에 전면으로 비치하고 계절에 따라 교체해 준다. 공간이 좁다면 벽에 걸 수 있는 책꽂이를 만들어도 된다. 말하기 자료로는 이야기를 극화하여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형들(손으로 만든 커다란 인형, 손가락 인형, 막대인형 등 세척이 가능한 헝겊인형 등)과 간단한 소품들(그릇과 가방, 전화기 등)이 있다. 소품들은 그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변적 상상이 가능한 것이 좋다. 또한 영아의 가족이나 친구 사진, 하루일과의 순서를 나타내는 자료 등을 비치하는 것은 언어발달을 촉진한다.

유아의 언어활동 자료로는 계절에 따른 그림책 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의 읽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고,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주제와 연관된 그림책, 또는 유아들이 만든 그림책을 전면으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준다. 더불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종이들과 각종 필기구를 일상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듣기 자료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극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소품들(막대인형, 테이블동화, 융판동화 등)과 자기 목소리나 가족, 친구 등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을 수 있는 녹음기, 마이크를 준비하면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모든 언어활동 자료는 조용하고 밝은 곳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깔개나 방석 쿠션 등을 함께 마련하면 도움이 된다.

	탐구활동자료
1-12	자연물과 수작업 활동, 과학 활동을 위한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감각을 통하여 주변을 탐색하고 과학적 태도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므로 자연 속에서 수작업 활동과 과학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동육아는 이러한 탐구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바깥활동, 나들이, 텃밭활동, 세시절기에 따른 요리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은 죽어있는 교구가 아닌 생명이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직접 만지고 보고 들여다보며 탐색한다.

탐구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찰거리가 있는 풍부한 자연환경,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 관찰을 위한 지속적인 방문이 필요하다.

또한 밖에서 관찰한 것이 실내에서는 좀 더 깊은 관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찰통을 이용하거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이차적 관찰 및 탐색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수조나 관찰통, 돋보기, 기타 도감이나 그와 관련된 책을 통해 관심을 증폭시키고,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아방에는 평면자료보다는 실제 자연물(도토리와 솔방울, 마로니에열매, 나뭇잎 등)과 다양한 실물자료(모양 맞추기, 고리 끼우기, 흔들거나 두드리는 기구 등)가 좋으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과 색의 놀잇감을 영아의 수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영아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유아방에도 나들이에서 수집해온 자연물(다양한 돌과 나무껍질, 조개껍질, 솔방

울, 도토리나 밤 등)을 모아두고, 어항에 물고기를 기르거나, 화분에 식물을 기르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함께 자연도감(식물도감, 동물도감, 나무도감 등), 자석이나 돋보기, 확대경 등을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수작업 활동을 위한 자료들(점토, 바느질, 직조, 실뜨기, 칠교, 산가지 등)은 유아들의 탐구력과 집중력, 의지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 수게임이나 주사위 등을 제공하여 수 개념의 형성을 도울 수 있다.

1-13	**표현활동자료**
	표현활동을 위한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는 표현활동을 통하여 신체발달 뿐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미적인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표현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음률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이다. 교사와 아이들이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몸이 자유롭게 리듬을 타고 교사와 아이들이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듣기를 즐겨한다면 생활 속 음률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음률활동의 자료로는 우리가락을 느끼고 익힐 수 있는 국악기(소고, 장구, 북, 꽹과리, 징 등)와, 다양한 음색을 경험하고 박자감각을 익힐 수 있는 악기(딸랑이, 마라카스, 종, 리듬막대, 탬버린, 트라이앵글, 핸드벨, 실로폰 등)가 있고, 거기에 계절과 상황에 따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카세트와 CD플레이어가 있으며, 표현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색의 보자기와 스카프, 끈, 리본테이프, 한삼, 부드러운 수건, 탈과 같은 소품들이 있다.

미술활동은 영유아기 때 크레파스, 색연필 등 간단한 재료로 긁적거리는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점차 다양한 종이와 도구, 재료 등을 사용하여 탐색하고 나타난 그림 등의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한 종이(도화지, 색종이, 한지, 잡지, 신문지, 골판지, 셀로판지 등), 그리고 쓰는 도구(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연필, 파스텔, 수채물감과 붓 등), 자르고 붙이는 도구(풀, 가위, 수수깡, 셀로판테이프, 끈, 빨래집게 등), 점토류(찰흙, 밀가루점토, 지점토, 종이점토 등), 콜라주나 만들기 재료(지끈이나 털실, 헝겊, 나무젓가락, 빨대, 단추나 각종 폐품류 등)가 있다. 영아의 경우

마음대로 긁적거리기를 할 수 있도록 벽면이나 바닥에 전지를 붙여줄 수도 있다.

실내에 이러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게시판에 작품을 전시하여 영유아의 성취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다.

1-14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
	역할놀이 자료가 다양하고, 쌓기놀이 자료가 최소 3종류 이상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는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에서부터 상상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모방하며 놀이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행위를 모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및 쌓기놀이(소꿉놀이, 가족놀이, 병원놀이, 음식점놀이, 블록쌓기, 동물원 꾸미기 등)를 할 수 있는 환경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 놀이감으로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게 좋다. 이때 제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놀잇감은 다양한 색과 형태의 보자기, 끈, 포대기, 둥구미, 의상, 가방, 모자, 기타 소품 등이 있다.

쌓기놀이 자료는 다양한 종류의 블록류(종이블록, 유닛블록, 카프라, 헝겊으로 감싼 스펀지 블록 등)가 있으며, 여기에 부정형의 크고 작은 나무토막들과 여러 가지 탈것이나 기둥 등의 표지판, 동물이나 사람 모형을 함께 두면 놀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영아용으로는 가볍고, 손에 잘 잡히는 안전한 블록을 주어야 한다.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영역을 가까이 두면 놀이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 외에 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들은 직접 만들 수 있다.

1-15	**전래놀이자료**
	전래놀이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전래놀이는 배우기 쉽고 여럿이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전래놀이를 일상적으로 하여 예로부터 전해지는 놀이를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래놀이와 노래를 적극적으로 체험하여 즐기고 계승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전래놀이 자료를 준비한다.

전래 놀잇감에는 칠교, 고누, 윷놀이, 산가지놀이, 실뜨기, 줄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고무줄, 썰매, 팽이, 백두대간놀이, 공기놀이, 판 뒤집기 등 혼자 즐기는 것과 둘이, 혹은 여럿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자유놀이를 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래놀이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어도 즉석에서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놀이(대동놀이, 씨름, 줄다리기, 꽃따기, 너리기펀지기, 사방치기, 땅따먹기, 닭잡기놀이, 장님놀이,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가 많은데, 교사는 이러한 내용을 활동자료로 만들어서 자료화 한다.

교사는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이 전래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보 .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애영유아들이 놀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놀이를 통해서 항상 배려해야 한다.

[영역 2]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개별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 구성
2-1	교사 대 영유아의 수가 법인의 권장사항, 건물의 규모, 방의 크기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다.

공동육아에서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매일 이루어지는 나들이와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요구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보통 법정 보육인원보다 공동육아에서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일정정도 또래가 있어야 관계가 원활하고 그 속에서 풍부한 놀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또래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육아에서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하므로 적극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방구성시부터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가 소속되는 방은 통합교사가 따로 없는 한 교사 대 영유아비율이 더 낮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차원에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한다.

교사	영유아 연령	최소인원	최대인원	법정인원
1	만 0세	2	3	3
1	만 1세	3	4	5
1	만 2세	5	7	7
1	만 3세	8	11	15
1	만 4세, 만 5세 이상	10	15	20

위의 비율은 각 터전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통합연령인 경우 어린 연령기준에 따른다.

2-2	**신입 영유아의 적응절차**
	신입 영유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은 최소 1주일 이상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신입 영유아는 처음 오는 어린이집의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부모와의 분리 등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안은 부모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신입 영유아와 부모가 새로운 터전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의 연령, 개인적 기질, 이전의 어린이집 경험, 부모의 직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적응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영유아와 부모가 느끼는 각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신입영유아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에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영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서히 터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적응프로그램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부모와 함께 등원하여 오전놀이하기, 부모와 떨어져서 오전놀이와 점심 먹기, 낮잠 자보기, 하루종일 생활하기 등 단계에 따라 진행한다. 이러한 신입 영유아의 적응은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며, 기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신입영유아가 적응하고 있는 동안, 기존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영유아에 대한 문서관리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문서가 잘 비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의 다양한 발달 및 학습 영역에서의 변화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개별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영유아의 기록으로는 생활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투약의뢰서, 건강진단카드(년 2회 이상 신체계측 기록 포함), 영유아 관찰기록, 부모면담기록 등이 있다. 영유아에 대한 기록은 발달적으로 적합한 보.·교육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고, 영유아의 발달을 보다 적절히 지원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개인파일로 묶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며, 새로 방구성이 되거나 교사가 바뀔 때 인수인계한다.

[영역 3] 보·교육 과정

가. 보·교육 계획 및 평가

모든 영유아들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인격체이다. 또한 영유아기는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영유아들 사이의 발달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렇듯 제각각 다른 영유아들이 모여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보·교육과정은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대상에 따른 다양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칫 영유아들의 흥미와 자발성을 살리는 보·교육활동이 별도의 계획 없이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의 흥미와 자발적 활동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일시적인 호기심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공동육아에서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형식적 생활과 놀이를 중심으로 일과를 운영한다. 이러한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일과 속에서 교사는 수시로 교육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적 의사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활과 놀이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사의 직관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천부적인 교사라고 해도 처음부터 이러한 직관적 통찰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직관적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반성적 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체화를 위한 시간이 필수적이다.

계획 및 평가는 교사의 직관적 통찰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영유아들과 보다 의미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계획 및 평가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계획 및 평가, 눈으로만 보는 관찰은 구체성이 떨어지기 쉬워서 검토와 해석, 이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충실하게 해내기 어려우므로 영유아 관찰 및 계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에서의 기록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세심한 관찰과 보·교육진단, 개별화 보·교육프로그램의 수립, 평가의 과정이 좀 더 강조된다. 즉,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각 발달영역(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언어·인지발달 등)에 대한 관찰 및 현행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단기 목표와 보·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이러한 개별화 보·교육 프로그램이 매일의 일과와 전체적인 보·교육과정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장애영유아의 보·교육기회가 가능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 부모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는 장애가 복합적이거나 심할수록 더욱 강조된다. 협력은 정보교류와 효과적인 보·교육방법의 계획 및 실행,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때에 따라 문서 전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3-1	보·교육 계획의 수립
	연간, 월간 또는 주간, 그리고 일일 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출발점에서 챙겨 가야할 지도와 나침반을 마련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새로운 보·교육의 길을 찾아나가고 있는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있어 계획을 수립하고 안(案)을 만들어 가는 일은 시행착오의 반복을 줄이면서 보다 질 높은 보·교육활동을 실천하고 공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일관성 있는 보·교육과정의 실행과 영유아의 요구에 적합한 보·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 터전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연간, 월간, 주간, 그리고 일일 보·교육계획을 연계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

연간계획안은 각 터전의 특징과 목적, 그 해의 강조점 등을 고려한 연간 보·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일 년의 흐름에 적합한 주제, 세시와 절기에 따른 다양한 통합활동(이야기, 전래놀이, 절기활동, 요리 등), 터전의 행사, 먼나들이 및 텃밭 가꾸기 일정과 방별 연간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월간계획안은 세시절기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월단위의 계획과 일정조정,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주간계획안은 한 주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세부 활동의 개요 및 계획과 일정조정, 준비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일계획안을 작성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린이집은 하루 종일 보육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방의 교사는 주간 교사회의 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방별 주간계획안을 준비하여 논의하고, 매일 방별 보육일지에 일과의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다음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다. 따라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할 여지를 두고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이 때 교사의 자의성과 융통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평가에 계획 변경의 근거와 그 실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는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적 이해와 개별 영유아에 대한 평소의 관찰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고려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교육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분한 정보와 세심한 관찰이 필수적이다. 부모 및 교사의 관찰과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파악된 장애영유아의 현행수준에 따라 장단기 지원 목표, 시작일과 종료일,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 개별화 보·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2	**보·교육 계획의 균형 및 통합성**
	생활과 놀이 속에 균형과 통합성을 살린 보·교육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실제적 삶은 일상생활과 놀이, 보·교육활동이 서로 특별한 구분 없이 넘나들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이들의 삶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일은 교육적 책무를 지닌 교사들이 상황과 맥락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방향성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구성원이나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자칫 아이들의 삶 자체를 분절된 것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교육활동의 계획은 생활과 놀이, 보·교육활동의 균형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먹기, 입기, 배변하기, 씻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이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일과시간 사이사이의 전이과정을 세심하게 운영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험과 지식들은 교사주도의 보·교육활동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지식들을 영유아들 각자의 것으로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해볼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놀이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해주어야 한다.

보·교육활동은 다양한 연령 및 크기의 모둠활동[1]과 개별활동을 유아의 발달수준과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 모둠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험은 공동체 교육에 꼭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요구에 반하지 않는 한 개별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적 흥미를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이나 개별 휴식 등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동적활동(신체표현, 게임, 실외놀이 등)과 정적활동(이야기 나누기, 그림 그리기, 동화듣기 등)을 균형 있게 계획해야 한다. 나들이는 공동육아 보·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나들이의 장소와 내용은 하루 전체의 활동계획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나들이 장소와 내용으로 계획된다면 오후에는 보다 정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오전의 나들이가 가볍고 조용한 산책 정도로 계획된다면 오후에는 보다 동적이고 표현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3-3	**보·교육 실제의 평가**
	연간, 월간 또는 주간, 그리고 일일 보·교육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교육과정을 실행한 후에는 예상과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보·교육일지에는 아동출결 상황, 일과의 흐름에 따른 영유아의 생활 및 놀이의 예상에 따른 계획과 교육적 지원내용 등을 기록하고 교사는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기록한다. 주 1회 이상 교사회의를 통해 평가한 내용과 과정을 공유하고, 다음 보·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월 1회 이상 그간의 보·교육 실제와 해석 및 평가 결과를 방모임이나 자료집,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부모들과 공유해야 한다.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연중 계획한 활동과 보·교육 실제를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보·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이 각 영역별로 균형 있게 잘 이루어졌는지, 목표에 부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반기 평가는 주로 연말평가로 대체하기도 한다.

1) 여기서 "모둠활동"은 집단활동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집단활동은 교사중심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본 지침서에서는 보다 아동중심적 용어로 "모둠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보·교육활동을 평가할 때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과 자료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합한 수준이었는지,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신체 리듬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영유아가 주도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했는지, 활동시간의 배정은 적절했는지,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등을 평가한다. 또한 평가의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 차기 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애영유아의 경우에는 개별 보·교육계획에 명시된 장단기목표가 성취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관찰,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4	**보·교육 실제의 관찰 기록 및 반영**
	생활과 놀이 상황에서 모둠 및 개별 아동에 대한 관찰 및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보·교육 실제에 반영되고 있다.

일상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있어 관찰은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관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끼리 활동이나 놀이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관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연령통합과 교사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관찰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관찰기록은 우선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맥락, 그리고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교사의 잠정적 해석과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때 개별 교사의 주관적 해석과 지원으로 그치기보다 동료 교사들과 교사회에서 논의하는 자료로 삼아 공유된 해석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달상의 문제와 관련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일상을 관찰하다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상황,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경험해본 적이 없어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관찰기록을 통해 교사는 한 발자국 떨어져 그 때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기록을 다른 교사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경

험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모아진 생각들을 기초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개별 아동에 대한 관찰기록은 보육일지 하단에 개별 아동의 관찰란을 마련해서 사용하거나 별도의 관찰일지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 또는 날적이를 활용하여 기록하면서 관찰내용이 담긴 부분을 별도로 복사해서 철해놓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경우 개별아동에 대한 관찰은 대부분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된다. 자칫 여러 명 속에서 조용히 지내는 아이를 살피는 일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챙겨보는 별도의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의 활동에 대한 주요 부분을 관찰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우선 교사는 항상 관찰기록용 필기도구와 함께 녹음기, 사진기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머니에 넣거나 목에 걸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기록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단어나 구, 짧은 문장으로 기록해두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했다가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모이면 하나의 주제를 담은 저널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모든 관찰기록에는 별도의 칸을 마련하거나 색, 괄호 넣기 등으로 구별하여 교사 나름의 해석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보·교육 계획 및 평가의 순환성
3-5	계획과 실행 및 평가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록을 통해 드러나 있다.

계획-실행-평가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은 이 세 과정이 연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실행-평가를 순환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적 상황과 맥락을 바라보는 교사의 민감성과 통찰력은 점점 더 커지고 또한 그만큼 공동육아의 .보·교육과정도 그 깊이를 더해갈 것이다.

나. 보·교육내용의 구성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생태적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나 연령, 성, 사회계층, 인종 등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열린 구조의 공동체,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지향하는 생태적 공동체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육아의 보·교육과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생활방식 그 자체이다. 이렇듯 공동육아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실제적인 삶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살면서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그 자체를 곧 보·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의 보·교육과정은 이러한 삶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일상생활과 놀이 중심의 접근방식을 택한다.[2)]

이렇게 총체적 특성을 지닌 공동육아의 보교육과정은 크게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아이들의 자발적 활동의 원형인 놀이, 교사의 준비와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상생활, 놀이, 교육활동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유아의 총체적인 삶을 구성한다. 이러한 총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영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들은 바로 공동육아의 살아있는 보·교육과정의 내용이 된다.

본 지표에서는 보·교육 실제의 총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의 보·교육과정 속에 담긴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편의상 공동체교육, 생태교육, 생활문화교육, 표현교육, 기본생활습관교육,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2012년 만 5세부터 시작하여 2013년 만 3,4세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을 5개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에 따른 목표와 수준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총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리 제시된 활동을 교사의 계획 속에서 조합하는 방식은 형식적이고 편의에 따른 구분이므로 삶의 총체성을 살려내기 어렵다.

3-6	공동체교육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하고,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공동체교육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함으로써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공동육아의 보·교육 내용은 장애나 연령, 성에 구애받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는 열린 구조의 사회를 지향하는 생활 속의 보·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열린 구조 안에서 영유아들이 의사소통 및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모둠 및 공동작업, 공동체놀이,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또래와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요한 약속을 만들고 지키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들이 공동체의 새로운 규칙을 구성원 스스로의 제안과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또한 이미 정해진 규칙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교사와 영유아들이 함께 새로운 협의의 과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영유아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고착된 또래관계가 지속되어 다른 영유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부모와 협력하여 마실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 마실은 영유아들의 관계 맺기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를 해치거나 지나친 마실로 인해 생활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하루의 대부분을 공동체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개인적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쉴 수 있는 공간 및 시간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개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감성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7	생태교육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공동육아는 나들이, 텃밭 가꾸기, 먹을거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생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생태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함께 해나간다.

나들이는 영유아의 삶의 공간을 건물이라는 좁은 환경에 제한하지 않고, 자연과 지역사회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영유아들은 나들이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및 인간과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영유아는 나들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소양을 키워간다.

영유아들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과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직접 흙을 만지고 채소를 가꾸며 음식쓰레기, 퇴비, 동물들의 분뇨가 거름이 되어 작물을 키우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더불어 함께 가꾼 텃밭작물을 수확하여 직접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 보는 일련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먹을거리의 생태적 순환과정 전체를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필요와 가치를 깨달을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들이, 텃밭 가꾸기, 먹을거리 등을 통한 생태교육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로의 출발이다. 어린이집 마당에서 시작된 영유아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어른들의 생활공동체로 이어지는 일 자체가 삶 속에 배어드는 살아있는 생태교육이 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3-8	생활문화교육
	세시절기의 흐름에 따라 생활문화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세시절기에 따라 영유아들을 키우는 일은 영유아들을 자연의 흐름에 맞게 키우는 것이다. 절기의 흐름에 따라 전래놀이나 공동체놀이를 또래와 함께 나눌 줄

알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 제철에 수확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자연조리법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을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입맛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은 곧 보·교육 그 자체이므로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만드는 것을 관찰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장 담그기를 비롯하여, 김장, 과실 차 만들기, 진달래 화전 등 저장음식이나 절기음식 만들기 등을 통하여 먹을 것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세시절기의 흐름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옛이야기를 입말로 들려주며 영유아들이 상상력을 갖도록 도와주고,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족과 또래, 교사와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야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전래놀이문화를 재발견하여 영유아들과 함께 놀아보는 것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며 전승하고, 놀이를 통해 신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들은 점차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또래와 놀고, 혼자보다 여럿이 놀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따라서 영유아들에게 자유놀이와 더불어 전래의 공동체 놀이를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들이 자발적이며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조직하고 사라져가는 또래놀이문화를 되살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육아의 지향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3-9	**표현교육**
	영유아의 흥미, 요구,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영유아는 음악, 동작, 미술, 극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한다. 표현교육은 영유아가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감상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육아에서의 표현교육은 기능적 숙련보다는 다양한 음률, 미술, 극놀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심미감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음률 활동은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풍물을 비롯한 국악놀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등으로 자기표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 활동은 다양한 재료를 충분히 탐색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 그리기, 오리기, 먹 작업하기, 흙 놀이 등을 한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기회도 필요하다. 공동의 표현활동을 함께 계획해 영유아들의 주변 생활환경을 꾸밀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켜 공동의 성취감과 유대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극놀이는 언어활동, 신체활동, 음률활동, 미술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예술활동으로 영유아들은 극놀이를 함께 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게 된다. 연극, 풍물, 인형극, 탈춤 등 다양한 극 활동을 감상하고, 직접 해봄으로써 표현력과 발표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나누는 경험도 바람직하다.

3-10	**기본생활습관교육**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관리 습관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올바른 식습관 갖기, 일과에 따라 낮잠과 휴식 시간 갖기,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습관 갖기, 놀잇감을 안전하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정리하기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율적인 자기관리습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어린이집 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공질서 지키기와 같은 기본생활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터전 안팎에서의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장애영유아에게 있어 기본생활습관 및 일과적응활동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특히 장애영유아는 신체적, 인지적 제한으로 인해 기본생활습관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영유아는 식사, 배변, 옷 입고 벗기 등과 같은 신변처리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하루일과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3-11	일상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영유아의 개별 발달수준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보·교육진단 및 평가와 개별적 요구에 대한 치료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한다.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은 영유아시기에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교사의 역할과 일상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일반 영유아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 영유아가 장애영유아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교사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지만, 늦게 배우는 아이도 있단다.” “생각주머니가 달라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몇 번 더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등). 학기 초에 장애영유아의 부모를 초청하여 해당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장애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애영유아의 보·교육에 있어 개별화 보·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영유아는 개인 간 발달차가 크고, 개별 영유아 내에서도 발달영역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를 고려하여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화 보·교육프로그램을 작성,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발달영역별 현행수준과 장단기 교수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하루 일과와 보·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개별화 보·교육프로그램 회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원장 또는 교사대표,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부모 등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역할을 맡는다. 상호 교류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가정과 터전의 연계는 특히 중요하다.

또한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주고, 감각운동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에게는 감각운동자극을 주며, 운동성이 지체된 장애영유아에게는 물리치료를 하여 지체된 부분을 자극하여 도움이 되도록 한다. 눈과 손의 협응 능력 및 소근육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치료를 시행한다. 터전으로 치료

사가 와서 치료교육을 실행할 수도 있고,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교육활동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다. 보·교육의 실행

공동육아 보·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실행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하루일과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의 흥미와 자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환경을 구성하고 보·교육 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루 중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유아들에게 어린이집은 가정과 더불어 생활방식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때문에 일관성 있는 생활방식을 형성하기 위한 가정과의 연계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유아들에게 놀이는 성인들에 의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생활방식을 각자 자기 안에 수용하는 한 방식으로써, 동시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세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자유놀이는 영유아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14	**등원 및 귀가**
	영유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맞이하고 귀가하도록 한다.

교사는 등원과 귀가 시간을 일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 등원은 일과와 별도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영유아가 등원할 때의 건강 및 기분상태는 터전에서 생활하는 하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나 또래 영유아들의 반가운 인사와 관심은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생활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아침에 맞이하는 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른 등원으로 잠이 덜 깬 영유아를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귀가 시에도 영유아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면서 부모에게 하루의 터전생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여 가정생활과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터전 내 모든 교사들이 등·하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인수인계기록

부를 마련해야 한다. 등원시간, 식사량, 인수인계자, 귀가시 인수예정자 등의 기록 란을 마련하고. 귀가와 관련하여 귀가시간, 인수인계자 등을 부모와 교사가 간략히 기록하는 것을 일상화하도록 한다.

3-15	**아침모둠[3)]**
	영유아가 전체적인 일과의 흐름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안내하는 아침모둠 시간이 있다.

아침모둠은 교사와 영유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상호간에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중요한 시간이다. 영유아에게는 하루일과의 흐름과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동시에 예측이 가능한 가운데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며, 교사에게는 영유아 개개인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건강 등을 살펴서 계획대로 활동을 진행해도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모둠은 교사들이 영유아들과 개인별로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영유아들끼리도 인사를 할 기회를 준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정해진 노래를 부르거나 체조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시간에는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 나들이 장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이 때 생일잔치를 한다거나 하는 그 날 만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침모둠의 형태는 전체모둠과 부분 통합방모둠, 방모둠 등이 있는데, 최소 주1회 이상의 전체모둠을 갖기를 권장하며, 전체모둠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교사가 영유아 개개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모둠 크기를 조절하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영유아들은 하루의 일상을 잘 지내기 위해서 아침모둠 이전에 등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는 부모들에게 알려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3) 이 시간대를 아침열기로 사용하고 있는 터전도 있으나 공동육아 현장연구모임에서 아침열기를 등원부터 아침모둠까지의 시간 전체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침서에서는 이 시간을 지칭해 “아침모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16	나들이
	주 3회 이상 2시간 전후의 나들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들이는 햇볕과 바람, 주변에 핀 꽃이나 나무, 곤충 등의 자연과 지역사회의 건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영유아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주고, 살아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준다. 교사는 나들이가 영유아의 일상적 활동으로써 의미 있고,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활동임을 인식해야 하며 안전하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들이를 갈 때에는 구급약, 물, 컵, 휴지, 돗자리, 수건, 물수건, 비닐봉투, 여벌 옷, 모자, 돋보기, 나들이 관찰 수첩, 필기도구 등의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나들이와 관련된 동화나 그림책을 보여 주거나 지난 나들이 때의 활동과 장소의 특징을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영유아의 준비물 챙기기,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약속, 화장실을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혹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계획 및 확인을 해야 한다.

나들이는 자연자원 자체에서의 오감활동, 수집한 자연물로 하는 표현활동,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쉽게 답을 주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고, 자연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분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나들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다양한 지역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나들이를 가면서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만나는 사람들과 정답게 인사 나누기,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곤충과 꽃, 떨어진 나뭇잎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깐 멈춰 서서 같이 느끼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특히,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느끼고 표현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때 교사는 영유아들의 표정 변화, 감탄하는 말, 느낌 등을 글이나 사진으로 담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들이에서 돌아와서는 수집해온 자연물을 확대해보기, 비교해보기, 모아서 꾸며보기, 소꿉놀이,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하기 등을 통해 자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한다.

3-17	점심 및 간식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건강하고 바른 식사습관을 익히고 있다.

점심시간은 공동육아의 일상생활 중 신체건강 및 자조기술발달과 관련해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시간이다. 점심은 전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먹기도 하고 방에서 방별로 먹기도 한다. 교사가 배식하는 방식에서 점차 자율배식으로 바꾸어가면서 자기조절력과 독립성을 길러간다. 영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식사 전의 배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 후에 먹은 그릇을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여나간다.

간식은 오전간식과 오후간식으로 하루 2회 제공한다. 오전간식은 아침모둠 전후나 나들이 중에 제공한다. 아침식사는 집에서 먹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간식은 대부분 낮잠 후인 4시에서 4시 30분 사이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저녁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여 든든하게 식단을 구성한다. 또한 반조리 식품보다는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들은 식사량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영양과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식사시간 2시간 전후에 간식을 먹도록 배려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오전 간식의 경우 영유아의 아침식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간식은 낮잠시간 직후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주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식사량은 영유아 개별적인 특성 및 그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절하며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바른 태도(앉아서 먹기, 도구사용하기, 골고루 맛있게 먹기, 즐거운 기분으로 먹기 등)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편식이나 음식 흘리기, 묻히면서 먹어도 그대로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점심식사 및 간식시간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식사 중에도 영유아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며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잘 먹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침식사 및 간식의 양, 영유아의 개별적인 음식선호, 몸 상태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적절히 대처한다. 이럴 때에는 억지로 먹도록 하지 않는다.

3-18	낮잠 준비 및 낮잠
	2시간 전후의 낮잠 준비 및 낮잠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또래 사이에 다투기 쉽고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이때 안전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일과 중 오후에 낮잠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특성상 혹은 건강상 잠이 쉽게 들지 못하는 영유아들도 있는데 이들에게도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조금 쉬다가 나와서 조용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낮잠 시간은 보통 점심식사 1시간 이후부터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편안하게 잠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커튼으로 채광을 가리고 조명은 끈다. 이때 개별적인 습관을 고려하며 잠이 일찍 들고 늦게 드는 아이, 조용히 자는 아이와 움직이면서 자는 아이 등 영유아간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인형을 주거나, 토닥이기, 머리 쓰다듬기, 자장가 부르기, 옛이야기 들려주기 등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가능한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주 확인하여 영유아가 깨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다. 잠에서 일찍 깬 영유아는 안아주거나 기분 좋은 느낌을 갖도록 친근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 정도에 따라서 옷 입고 벗기, 이불정리하기, 베게 올려놓기 등을 스스로 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다.

3-19	모둠활동
	공동육아의 보·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한 모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그동안 교사의 많은 준비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통 오후에 배정하고 오후활동으로 지칭해 왔으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모둠활동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모둠활동은 전체, 방, 연령, 흥미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통 3~40분 정도 실내, 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 모둠활동은 보통 교사주도로 이뤄지지만 아이들과의 밀도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융통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사회의 일과운영 역량이 요구된다.

모둠시간에는 공동육아 공동체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되는,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교육활동을 교사가 준비하여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준비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사에 의해 계획된 통합모둠활동이 아니라면 주제풀이 활동과 같이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함께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풀이 활동은 교사와 영유아들이 선정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영유아들 사이의 협력과 교사의 개별화된 지원을 통하여 계획-실행-평가의 순환적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교사와 아이들의 관심과 준비정도에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이 시간을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교사와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의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3-20	**자유놀이**
	자유놀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자유놀이는 영유아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공동육아에서는 초기부터 바깥나들이를 통해 유아들의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왔다. 이를 위해 일상나들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부터 아이들이 최소한의 제약 속에서 풍부한 자유놀이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인 선정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오가는 시간

이 너무 길면 자유놀이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공간이 너무 개방되어 있거나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곳도 안전상의 문제로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의 제약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자주 가는 나들이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때 주변의 풍부한 생태자원도 풍성한 놀이를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마당이 충분히 확보된 터전이라면 마당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이를 위해 아이, 교사, 부모들이 함께 마당의 생태자원(텃밭 가꾸기, 유실수심기, 연못만들기 등)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보·교육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

터전 안팎에서의 풍부한 자유놀이를 위해 교사는 평상시 관찰을 기초로 영유아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자료와 환경을 다양하게 구성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책보기 공간, 쌓기 놀이 공간, 역할 놀이 공간, 손끝 놀이 공간, 표현 놀이 공간 등의 놀이 공간을 터전 안에도 상시 구비해두어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보다 활발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을 계획하고 꾸미는 일을 유아들과 직접 함께 한다면 유아들에게 그 공간은 더욱 의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유놀이시간에 장애영유아들이나 자칫 소외된 아이들은 놀이 상황에서 벗어나 방치된 채 지내기 쉽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이 또래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과 놀잇감을 제공하고, 중재와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흥미나 요구, 능력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3-21	**하루 일과의 흐름**
	영유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일과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일과를 예측하며 그 흐름에 따라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과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날씨, 계절, 터전환경 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과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바뀐 일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침모둠에서라도 미리 영유아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 영유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각 일과의 구성요소들이 이어지는 사이사이에 화장실가기, 손씻기, 이닦기, 낮잠준비, 잠자리 정리 등과 같은 전이과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하루 일과운영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전이과정은 하루일과를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생활하는 교사의 시각에서는 다음 일과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자율적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이시간은 정해진 하루 일과 사이의 틈새 놀이시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시각 차이에서 교사와 아이들의 줄다리기가 상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생활습관은 교사의 통제나 간섭보다는 자기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니만큼 교사는 일관성 있는 일과의 운영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서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하루일과를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여 장애영유아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원활한 하루의 흐름을 위해 전이시간 전에 먼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도록 해서 다른 영유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가정에서의 생활처럼 일련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매일의 일과가 규칙적인 리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영유아는 일어날 일과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하루 흐름에 보다 쉽게 합류할 수 있다. 일과표는 어린이집 전체 일과를 사진, 그림, 글씨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수준에 맞게 시각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제시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다음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 4] 상호작용

공동육아는 다양한 관계를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생각한다. 관계란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호작용의 내용과 질은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

공동육아 교사는 영유아들과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므로 관계맺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는 일상적인 양육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과 태도는 영유아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존감은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긍정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영유아를 돌보며 영유아의 개별적인 정서를 배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과 영유아가 속한 가족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때, 영유아는 자신이 더욱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공동육아는 교사와 부모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4-1	**영유아에 대한 평등한 대우**
	영유아의 성별, 외모, 발달적 지체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공동육아에서는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반말문화와 통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나 수치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유아는 성별, 외모, 발달적 지체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영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된다. 교사는 사용하는 말과 교재교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편견과 기회의 불평등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 가능한 반편견 교재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따라 놀잇감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칭찬의 기준도 성별에 관계

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별, 장애에 관계없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며 영유아의 외모, 키, 몸무게, 피부색, 장애 등이 놀림이나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종교나 사회경제적 배경, 한부모가족이나 입양가족,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영유아들이 '다양함'의 가치를 알고,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유아 가족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영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부터 다른 사람의 견해나 경험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자신의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2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반응**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공감하여 반응한다.

영유아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여 질문과 요구가 많다. 이러한 영유아에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영유아의 질문에 공감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먼저 교사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궁금할 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을 관찰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섬세하게 반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반응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어린 영아들은 언어사용이 불완전하여 몸이 아프거나 불안할 때, 또는 갈등상황에서 불만이나 짜증이 날 때는 부정적인 정서로 표현을 하므로 교사는 영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알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영아를 공감하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큰 유아의 질문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거나, 드러나지 않는 유아의 의도나 감정을 고려하여 공감하고 반응해야 한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영유아가 교사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로 줄여야 한다.

4-3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교사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영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준다.

교사는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 흥미를 존중하며, 친밀한 태도로 대하고 대화를 자주 해야 한다. 특히 영아의 불완전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영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고난 기질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명확한 단어와 단순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고, 대화할 때는 주로 영유아가 직접 경험한 것, 관심을 갖는 물건이나 놀잇감, 주변의 주요인물인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의도대로 대화를 이끌어나가기보다 영유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영유아간 의견을 활발히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사는 친밀한 태도로 영유아를 안아주거나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애정을 표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준다. 어린이집에 오고 갈 때, 점심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에도 자주 영유아와 눈을 맞추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영유아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시도된 별칭과 반말 사용으로 교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영유아의 느낌을 살피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 지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지도하고, 부정적 방법으로 지도하지 않는다.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은 영유아의 자존감을 키우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 언어로 표현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제안하고, 약속을 정하고 지키며 교사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무시하기, 소리치기, 벌세우기, 체벌 등은 부정적 방법의 사례가 된다.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영유아의 개인적인 발달특징, 어린이집의 공간 및 시간의 구성, 교사와 또래의 행동과 말, 그리고 가정 배경 등이다. 교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며, 단순히 가르치려하기보다는 놀이와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하고 볼 수 있다. 또는 자율적인 행동을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추측해 보는 것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는 교사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해 영유아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 있다.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여 행동이 일어난 배경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부모와 함께 찾아보아야 한다.

4-5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한다.

영유아기는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이다.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수준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끌며,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에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익혀나가도록 돕는다. 더불어 다른 영유아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또래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한다.

교사는 영유아간 서로 도와주기, 놀잇감 나누어 쓰기, 또래에게 관심 갖기나 긍정적인 정서표현하기(웃기, 껴안기, 즐거운 목소리로 말하기,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편지 주고받기) 등에 대한 행동을 자주 격려해주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간 친밀감을 느끼고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영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회적 행동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계획된 시간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언어적, 행동적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속하는 간식이나 점심 먹기, 화장실 가기, 실내외 놀이 등 여러 상황을 잘 이용하여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만들어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놀이의 교사참여
4-6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연스럽게 함께 놀며 놀이를 지원, 활성화한다.

공동육아에서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당과 나들이 장소에서 주도적으로 다양한 놀이를 한다. 영유아는 놀면서 배우기 때문에 교사의 주의 깊은 관찰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영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상상놀이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여 또래들과 다양하고 활발하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영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유지, 제안, 지지, 확장시켜 주어야 한다.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는 놀이가 단순히 반복되어 흥미를 잃게 될 때, 다른 놀잇감이 필요할 때, 또는 놀이 친구가 필요할 때 등이다. 이럴 때 교사는 놀이 상대로 조심스럽게 참여하거나 놀잇감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놀이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영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과 발견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영유아들의 개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때로는 놀기 싫어하는 영유아의 정서를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항상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유아의 연

령과 놀이 종류에 따라 교사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놀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7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수용
	영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때 이를 수용적인 태도로 공감하고 보살핀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항상 만족스럽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교사가 반응하려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영유아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는 건강이나 생리적으로 불편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또래간 문제로 화가 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발달단계의 특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가정에서부터 이어진 정서일 수도 있으므로 원인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영유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먼저 부정적인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공감해야 하며, 이후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영유아를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재빨리 개입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후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유아가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가 울거나 화내고 불안해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 영유아의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가 영유아의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감싸주면 영유아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껴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은 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의 형성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적인 정서가 오래 갈 때는 교사회의, 부모상담을 통해 영유아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8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해결하도록 돕는다.

영유아 간에 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때, 교사는 영유아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 영유아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도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영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간에 자율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유아간에 갈등상황이 심할 때는 대상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의 격한 마음이 진정되거나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공감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로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여 감정에 공감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등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영유아간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학습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장애영유아는 자신의 요구를 적절한 언어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교사는 장애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찾고, 행동지원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교사의 수, 집단, 난이도 등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영유아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다른 아동으로부터의 신체적 공격, 장난감 쟁탈, 또래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유아는 면역력이 취약하여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어릴 때부터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염성질환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몸이 아픈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들에게는 다양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영양의 균형을 맞춘 식단을 계획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가. 청결과 위생

5-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유지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내외 공간의 청결을 유지한다. 각 방, 현관, 복도, 교사실, 자료실 등을 매일 청소하고, 매달 정기적 소독과 적어도 2달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 해충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청결과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단, 현관, 통로 등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나 창문, 창틀, 벽면, 공동매트, 사물함 뒤편 구석진 곳 등도 세심하게 살펴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마당이나 대문 앞, 어린이집 담장 밑 등 실외 공간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청소용 걸레나 도구는 삶거나 소독한 후 햇빛에 말려서 사용하며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또 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연 1회 이상 방충, 방역, 나무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5-2	실내 환기와 온도 및 습도 조절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위하여 실내 환기와 온도 및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집 실내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 특히 실내 놀이 후나 식사시간 후, 낮잠시간 후, 추위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쉬운 겨울철에는 각별이 환기에 주의하여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영유아가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 등 계절에 맞게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료실이나 창고 등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여 교재교구나 비품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습기를 방지한다. 습도조절을 위해서 숯, 어항, 가습기 등을 활용하며, 에어컨, 공기정화기,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와 수질을 관리한다.

5-3	화장실 및 세면장의 청결유지
	화장실 및 세면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화장실과 세면장은 영유아가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므로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일과 중에도 자주 청결 상태를 점검한다.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은 물기가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오염을 방지한다. 수건은 젖으면 바로 교체하고 마른 수건과 비누, 휴지, 휴지통 등을 항상 비치하며 모자라는 물품이 없게 한다.

칫솔은 칫솔소독기나 건조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하며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의 칫솔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양치용 컵은 소독이 용이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기적으로 끓는 물에 삶거나 소독한다.

영아용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후 바로 비우고 세척한다. 영아를

위한 기저귀 갈기 및 씻는 공간은 영아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곳이므로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기저귀 갈이대의 경우, 영아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오물이 묻을 수 있으므로 자주 닦고 소독하여 세균감염을 막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또 오물이나 세균이 교사의 손을 통하여 다른 영유아나 교사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한 기저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우며 환기를 하여 악취가 나지 않게 한다.

5-4	**주방 공간과 설비,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주방과 급식 설비, 식기류, 배식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주방은 식사와 간식이 준비되는 곳이므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한다. 주방은 매일 청소와 소독을 하고, 자주 환기를 한다.

냉장고와 조리대, 건조대 및 식기, 칼, 행주, 도마 등과 같은 조리 도구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도마와 칼은 육류, 어류, 야채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위생적으로 소독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행주는 용도에 따라 조리용, 기구용,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후, 매일 살균 처리하여 건조한 후 보관해야 한다. 냉장고는 내부를 정리정돈하며, 음식물이나 때가 냉장고 안팎에 묻어 있는지 매일 확인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식재료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며 식자재 보관 요령을 준수하여 그에 맞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남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하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음식이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앞치마, 머릿수건, 위생복 등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머릿수건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귀걸이, 반지 등을 착용하거나 매니큐어를 바른 채 조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그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감기와 같이 전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

음식을 배식하기 전 식탁을 닦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집게, 국자 등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배식한다.

5-5	마실 물과 물 컵의 관리
	마실 물이 항상 위생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물 컵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어린이집에서 위생적인 식수 관리는 물로 인한 수인성 질환 예방 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영유아들이 원할 때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생수나 끓인 물을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서 마시기 쉬운 곳에 준비해둔다.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컵은 소독이 용이한 스테인리스 컵이 좋으며 사용 전 컵과 사용한 후의 컵을 분리한다. 한번 사용한 컵은 깨끗이 씻은 후 식기소독기나 먼지와 습기가 없는 청결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나들이를 갈 때는 개인용 컵과 물통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의 경우 우유병이나 빨대가 달린 개인용 컵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모유, 또는 우유가 위생적으로 보관되지 않거나 우유병, 젖꼭지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했을 경우 배탈, 설사, 구내염 등의 전염성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모유나 우유 또는 우유병을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유는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하며 냉장 보관한 우유를 데워 먹일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한다. 먹다 남은 우유는 바로 버리며, 우유병과 젖꼭지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한다. 부모에게 매일 소독된 우유병 여러 개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5-6	교사와 영유아의 청결유지
	영유아와 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을 유지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놀잇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나들이 등 바깥놀이를 하면서 손이 더러워지는 등 각종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 따라서 영유아가 자주 손을 씻어서 각 종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용 후, 나들이 등 바깥놀이 후, 식사나 간식 전후 등 반드시 손을 씻도록 교육하며 일과 중에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교사는 자주 손을 씻어서 영유아를 위생적으로 보살피고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생활 습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점심식사 이후 영유아

와 교사는 반드시 이 닦기를 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청결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칫솔도 세균이 전염되거나 번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5-7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개별 침구를 사용하며 침구를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침구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여 세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공동침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베게와 이불은 개별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로 맞춘 침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을 표시해서 개별 아동의 것을 구분해준다.

침구는 땀과 침, 오줌 등으로 인해 쉽게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기 쉬우므로 더러워지면 바로 침구를 교체해주고 자주 일광소독을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침구는 별도의 이불장이나 이불커버 등을 마련하여 청결하게 보관한다.

5-8	**놀잇감의 청결**
	놀잇감은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세척한다.

영유아가 매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은 항상 청결하게 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영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인형, 보자기, 끈 등 헝겊 놀잇감은 청결하게 세탁하고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놀잇감도 연 3회 이상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영아가 입에 넣기 쉬운 놀잇감은 매일 세척한다. 마당에서 사용하는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나 놀잇감 역시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깨끗하게 한다. 세척하기 곤란한 나무 놀잇감 등은 햇볕에 일광소독하거나 소독액 등으로 닦아준다.

나. 질병관리

5-9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도
	일상적인 손 씻기, 식사 후 양치질, 날씨에 맞게 옷 입기와 모자쓰기, 장갑 끼기 등을 연령에 맞게 돌보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유아는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관리와 이와 관련한 기본습관들을 익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공동육아는 나들이나 마당놀이 등 실외활동이 많은데, 실외활동을 할 때 계절이나 날씨에 적합한 복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복장(의복, 모자, 신발, 장갑 등)은 체온을 유지시키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해준다. 혹시 영유아가 잘 챙기지 못할 때는 교사가 영유아의 복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5-10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모에게 알린다.

영유아기는 각종 전염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또는 교사, 조리사 등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다른 영유아에게 쉽게 전염되기 쉽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부모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 전염성질환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과 각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부모들에게 제공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영유아나 교사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휴원, 휴직하도록 한다.

5-1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보호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보면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영유아가 종종 있다. 영유아가 몸이 아픈 경우 휴식공간이나 조용한 곳에서 보호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돌본다. 응급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마련해야 하며, 위급한 사태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약품과 건강보고서를 항상 구비해야 한다.

영유아에게 투약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에 투약해야 한다. 그리고 투약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약국 처방에 따라 상온 및 냉장 보관해야 하며 투약의뢰서에는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및 시간, 의뢰자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5-12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며 질병의 치료를 위한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의 경우 추가로 건강검진을 하며 이에 대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보관하며, 영유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건강검진 시기는 영유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한 시기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개인별로 관리한다. 신규 영유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받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신규로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그 외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와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어린이집 보육 실습생까지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키, 가슴둘레 등 신체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계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5-13	**영유아를 위한 먹거리**
	먹거리는 영양의 조화를 이루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소화가 잘 되는 자연식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재료로 조리된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발달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채소, 육류, 과일 등 화학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은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를 골고루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건강한 자연식 식단을 제공한다.

또한 영유아가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조리하여 영유아의 편식을 방지하는 한편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지나치게 당도가 높은 식품이나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등 자극성이 강한 식품,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식품 등의 조리는 피해야 하며 인스턴트식품, 반조리식품,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은 영양교사가 공동육아 식단(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에 매달 게시)과 과년도 식단 등을 참조하여 터전의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 식단은 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하고 하루 두 번 제공하는 간식과 점심의 종류와 조리방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간식은 소화가 잘되어 식사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오전 간식은 조리시간이 짧고 간편하면서 포만감이 적은 것이 좋다. 오후 간식은 귀가 후 저녁식사 시간 사이의 허기를 채워 줄 수 있도록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점심은 밥과 국 또는 찌개, 단백질 종류 반찬 1가지, 채소류 반찬 1~2가지 정도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제철 식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의 형태나 맛, 크기 등도 조절하여 제공한다. 조리되어 배식된 음식이 남을 경우,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다시 배식하지 않도록 한다.

[영역 6. 안전]

어린이집의 안전은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들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신체를 발달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안전관리는 영유아 주변의 인적, 물적인 환경을 포함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실내외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말한다. 또한 관련설비의 사용방법 준수,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마련, 등원부터 하원 할 때까지 영유아 보호 관리와 교육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나 대비책은 문서로 작성하여 전체 보육교직원들은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모두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실내외 안전관리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6-1	실외시설과 설비가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며,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한다.

실외시설과 설비는 어린이집 건물 외부에 설치된 모래밭 등을 포함한 모든 놀이기구와 담장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실외시설과 설비는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특성에 알맞은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설치하며, 수시로 점검을 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 기구 아래와 주변에는 충

격을 흡수할 수 있는 모래나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모든 놀이기구는 날카롭거나 모서리가 뾰족한 곳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가 다치지 않게 한다. 놀이시설물에 영유아의 몸이 끼거나 빠지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난간이나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없앤다. 수리를 필요로 하는 놀이기구는 될 수 있는 한 고장 즉시 수리하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영유아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실외 놀이도구나 텃밭도구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는 보관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외 신발이나 우산 또는 실외 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의 보관은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하여 보관 관리한다.

모래밭은 주변이 지면보다 낮은 것이 모래를 보관하기에 수월하다. 모래밭에는 모래덮개를 구비하고 수시로 유리조각, 돌멩이, 오물 등과 같은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교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모래덮개는 어린이집 개방시간과 함께 열어주어야 한다. 마당에는 더러운 물이나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한다.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6-2	실내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보수한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실내 공간이다. 어린이집의 실내시설과 설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이동하기 쉽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출입구 부분이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없게 하며, 계단 벽에 보조 지지대나 안전봉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며 밖에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창에는 창문 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며, 난간 한쪽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의 내부(벽, 천장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칙에 따라 불연재, 준 불연재 혹은 난 불연재로 설치하며 커튼 및 카펫 등은 방염성능을 갖춘 것을 구비한다. 돌출형 라디에이터, 난로 등을 비롯한 온열기는 영유아의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높이를 조정하거나 울타리 등의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보일러 설비, 두꺼비집, 화기, 안전덮개가 없는 콘센트 등은 그에 맞는 안전설비를 갖추고 책상, 의자, 책꽂이등 가구의 모서리와 표면은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하거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해 무거운 물건은 아래쪽에 보관하고, 선반은 떨어지지 않게 안전설비를 한다. 거울은 깨지지 않는 안전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나 전기는 가스안전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 및 바닥 난방장치가 필요하며, 온수를 사용할 때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꼭지에 온도고정 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변기나 세면기의 높이도 다양하게 설치하여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안전 발판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가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한다. 또 장애영유아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수건이나 옷걸이, 안전봉 등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영유아가 요리활동 등의 이유로 주방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교사 등 성인의 관리 감독 하에 이용하도록 하며, 조리용 렌지를 비롯하여 뜨거운 국그릇이나 밥솥 등 주방용 기기나 주방용품을 함부로 영유아가 만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수칙을 교육한다. 계단은 미끄럼 방지 턱과 안전봉 등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며 조명을 밝게 한다. 정기적으로 실내시설, 설비가 안전한지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사용불가 표시를 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리한다.

6-3	**각 방의 실내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각 방의 실내설비와 놀잇감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안전과 파손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영유아가 매일 사용하는 각 방의 설비와 놀잇감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들이 삼키기 쉽거나 유해한 색소 등이 함유된 놀잇감이나 설비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각 방의 교사들은 실내 설비와 놀잇감을 매일 점검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파손된 것은 즉시 수리, 보완한다. 각 방은 환기, 채광, 조명,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야 한다.

교구장이나 사물함은 영유아의 키 높이에 맞는 것을 구비하고 비치한 교구들은 영유아들이 쉽게 꺼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실이 좁을 경우 사물함 등을 넓은 거실이나 복도에 빼 놓을 수 있다. 이때 소방안전을 위한 공간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무거운 서랍은 잠금장치로 잠가 놓는 것이 좋으며 영아용 이불이나 요는 질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너무 푹신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게시판에 뾰족한 핀을 사용하는 것도 피하도록 한다.

6-4	**위험한 물건의 보관**
	약물이나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영유아들은 발달특성상 호기심이 강하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영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세척용 세제, 소독제와 각종 약품은 물론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자료실의 송곳, 강력 접착제, 스테이플러 같은 위험물질이나 석유, 성냥과 같은 인화물질, 가시가 있는 식물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영유아가 글루건, 바늘, 가위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안전수칙을 사전에 교육하고 성인의 관리 감독 아래 사용하게 한다. 특히 화장실에 세척제나 청소도구들을 보관하는 경우, 영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영아(만0-1세, 2세)의 경우 3.5cm이하의 크기를 가진 놀잇감은 코나 입에 넣었을 경우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나. 보호와 대처방안

6-5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교사는 영유아들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각 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시한다.

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은 교사가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영유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 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이지 않은 공간을 늘 주의해서 살피며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잘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한다.

교사가 근무를 교대하거나 오전 오후 간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어쩔 수 없이 맡은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교사나 성인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을 인계하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유아를 돌보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할 때는 영유아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자세로 해야 한다.

6-6	영유아의 인계과정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등·하원할 때는 영유아의 부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하며, 인계과정에 대한 자체 규칙을 문서화한다. 규칙에는 인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영유아가 등원할 때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나 기분, 식사여부 등을 부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귀가할 때에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유아가 부모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점부터 교사에게 영유아를 인계할 때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만약의 사고를 예방한다.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영유아를 인계할 때 지정된 보호자가 바뀐 경우는 반드시 전화 확인이나 서명 확인을 해야 한다.

6-7	나들이 안전관리
	나들이 갈 때 안전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비상약품을 상비한다.

나들이는 어린이집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니만큼 오가는 길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나들이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에 주의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법, 나들이 할 때 위험물과 위험한 장소 알리기, 공중도덕 지키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게 한다.

나들이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과 간단한 비상약품, 휴지, 휴대폰, 비상금 등을 챙기며 더운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써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나들이일 경우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여 영유아가 지치지 않게 한다.

나들이를 갈 때는 반드시 교사 혹은 성인이 인솔하여 가도록 하며 길을 잃어버릴 경우 등에 대비하여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를 필히 착용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도보로 나들이를 갈 경우, 가능한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피하고, 차가 지나다닐 경우 등에 대비한 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안전을 위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한다.

교사는 수시로 영유아의 상황 및 인원수 등을 확인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나들이 가기 전에 영유아들이 짝을 지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연락체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은 물론, 교사들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나들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8	나들이 차량 운행
	나들이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교사가 동승하여 운행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을 중요시하여 등하원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나들이 역시 지역사회와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중요시하는 맥락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터전 주변의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한다. 차량에 명시된 정원을 준수하고 안전설비를(안전띠, 구급상자) 갖추어야 한다. 배상보험의 책임이 가족 등에게 한정되어 있는 아마의 차량은 이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 운행 중에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운전자 외에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이 동승한다. 차량에서 내리고 탈 때는 반드시 성인이 먼저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영유아들이 질서를 지켜 승하차하도록 하고 차량 맨 앞좌석에 영유아를 태우지 않는다. 운행 중에는 장난이나 이동을 삼가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킨다. 운전자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 운전하며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의 교사가 동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한다.

6-9	**안전공제회(상해, 화재, 배상보험)가입 및 공지**
	영유아의 입소시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든 부모들에게 설명하여 알린다.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입소할 때 안전공제회(상해, 화재, 배상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안전사고의 내용, 배상의 책임, 사고의 소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어린이집과 부모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명시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어린이집의 제 규정은 입소 시 신입조합원교육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모든 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등원하여 하원할 때까지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비해야 한다. 영유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입소 시 영유아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매일매일 달라지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나 주의사항 등을 미리 어린이집에 알려주어야 한다.

6-10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대피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안전대피시설을 설치한다. 자동화재 탐지기, 비상벨,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구비하고 비상구에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문 안쪽에 설치한다.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비상 미끄럼대와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한다.

가스를 사용할 경우는 가스안전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부모, 교사 등의 비상연락망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방서, 병원, 파출소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여 전화기 주변에 부착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처요령과 보육교직원들의 역할 분담, 신고 방법, 비상출구나 계단의 사용 절차, 소화기 사용법 등을 미리 숙지하여 만약의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 소화기나 자동화재 탐지설비, 누전차단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6-11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교육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지식 및 행동요령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경우의 안전관리 요령을 교육받고 터득해야 하며 매년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등이 있으며, 이외 안전한 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매월 화재나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불시에 실시하여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안전교육과 소방(비상대피)훈련은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사진을 첨부한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부록.
문서목록

1. 인증위원회 제출용 문서

- ○ 자체점검보고서(지정양식)
- ○ 조합현황보고서(지정양식)
- ○ 정관 및 각종 규정(운영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공적기금 등)
- ○ 조합 연간계획(소위별 계획, 예산 포함)
- ○ 조합원교육 진행 및 평가자료
- ○ 세입 세출 예산서, 세입 세출 결산서,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서
- ○ 월별 세입 세출 예결산서(4개월)
- ○ 보육교직원 임금 지급내역서(4개월)
- ○ 보육교직원 기록부
- ○ 연간 교사교육계획(신입교육, 수습·적응, 재교육 등)
- ○ 연간 교육계획
- ○ 월간 교육계획 및 평가(4개월)

2. 터전 구비문서 **※ 아래의 구비문서는 현장실사에서 확인 절차를 갖습니다.**

- ○ 터전 정보 안내문 또는 리플렛
- ○ 조합과 어린이집의 주요연혁 기록
- ○ 조합의 각종 회의록(총회자료집과 출석부 포함, 이사회 회의록은 문서로 출력 비치 / 방모임, 소위모임 회의록은 홈페이지도 가능함)
- ○ 대기자명부
- ○ 통장사본
- ○ 수입·지출 결의서(어린이집, 조합재정 분리하여 분철 보관)
- ○ 보육교직원 기록부
-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복사본

- 보육교직원 보험 서류
- 근로계약서
- 교사 회의록(월간, 주간, 상하반기 등)
- 교사회 업무분담표(일상, 비상시, 하루일과)
- 교사연수대장, 계획서
- 보·교육 계획과 평가(연간, 월간, 주간)
- 보·교육 일지
- 평가서(주간 교사 회의록, 월별, 상반기, 하반기)
- 교사교육보고서(계획, 실행평가 포함)
- 연간 안전교육 계획안
- 식단
- 신입영유아 적응절차 안내문
- 등원자제 질병 안내문
- 생활기록부
- 귀가동의서
- 응급처치동의서
- 건강기록부, 건강검진기록부
- 투약의뢰서, 보고서
- 날적이
- 영유아관찰기록
- 부모면담일지
- 소방훈련 보고서, 평가서
- 비상대피로, 비상시 교사업무분담표
- 실내외 시설안전점검표
- 실내 청결위생 점검표(청소표, 청소체크리스트 등)
- 교재교구대장

- 비품대장
- 비상연락망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인증지침서
발행처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발행인 : 이경란
발행일 : 2015년 5월 7일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서교동 481-2) 태복빌딩 201호
전 화 : 02-323-0520
팩 스 : 02-323-1695
http://www.gongdong.or.kr
gongdong@gongdong.or.kr